

# 中國延邊地域의 韓國語 研究\*

崔 明 玉

- |        |        |
|--------|--------|
| 1. 序 論 | 4. 語彙面 |
| 2. 音韻面 | 5. 結 論 |
| 3. 語法面 |        |

## 1. 序 論

이 연구는 두만강 북쪽에 위치하는 중국 연변지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앞으로 '이 지역어'라 칭한다)에 대한 공시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지역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용정진과 도문시 도문진 그리고 훈춘시 훈춘진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 특히 연길시(延吉市), 용정시(龍井市), 도문시(圖們市), 훈춘시(琿春市) 등은 주민의 90% 이상이 함경도 출신, 그 중에서도 함경북도 북부지역의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어는 연변의 다른 지역어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이 지역어의 연구는 연변지역어의 연구라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지역의 주민은 대부분 함경북도 북부지역의 출신이거나 그 후세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어는 연변지역어이면서 함경북도 북부지역어가 된다. 함경북도 북부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함경북도 북부지역어는 언어적으로 고립되어 왔다. 따

\* 이 글은 2000년 2월 10일 韓國文化研究所(서울대)가 주최한 '제1회 국제학술회의 한·중 교류와 상호인식의 자취'에서 발표한 "함경북도 북부지역에 접한 중국 연변 지역의 언어"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라서 함경북도 북부지역어에는 고어의 자취가 많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개신형이 존재할 것이 예상된다. 이 점에서 이 지역어는 국어사 연구와 공시적 국어연구를 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된다.

그러나 이 지역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전학석(1982, 1988)과 宣德五, 趙習, 金淳培(1990), 집필조(1993), 광충구(1997), 채옥자(1999)가 이 지역어에 대한 연구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전학석(1982)은 「훈춘」지역어의 음운체계에 대한 연구이고, 전학석(1988)은 「연길, 개원」지역어와 중세국어의 성조를 대조한 연구이다. 그리고 宣德五, 趙習, 金淳培(1990)와 집필조(1993)는 중국 안의 한국어 실태를 조사·보고한 것으로서, 거기에 이 지역어의 음운, 어휘, 문법에 대한 서술이 수록되어 있다. 또 광충구(1997)은 이 지역어의 어휘, 문법, 음운에 대한 자료 보고이다. 한편 채옥자(1999)는 이 지역어의 활용화에 대한 연구인데, 공시적 음운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실태를 고려할 때에, 이 연구는 이 지역어에 대한 종합적인 공시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1998년 7월 30일에서 8월 8일에 걸쳐 현지조사에 의해 수집한 것이다.<sup>(1)</sup> 열흘 동안에 걸쳐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 중에 대상 지역의 실제 언어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필자는 세 지역의 자료를 대조하여 선택함으로써 그러한 잘못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논의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론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음운면'과 '어법면' 그리고 '어휘면'이 그것이다. '음운면'에서는 이 지역의 음운목록, 음운과정과 음운규칙이 논의될 것이며, '어법면'에서는 화계(話階)에 따른 문체법(文體法)과 부정법이 논의될 것이고, '어휘면'에서는 친족명칭을 비롯하여, 인체, 민속, 곡식, 식품, 도구, 등식물 등의 어휘와 음운

(1) 「용정」 지역어는 필자와 김덕모(연변사회과학원)선생, 한성우(서울대 대학원) 선생이 조사하였고, 「도문」 지역어는 배주채(가톨릭대) 선생과 이민덕(연변대) 선생이, 「훈춘」 지역어는 광충구(서강대) 선생, 전학석(연변대) 선생, 현금석(前 연변사회과학원) 선생이 조사하였다.

각 지역의 주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 「용정」(陳粉玉, 女, 71, 부모 : 최령생), 「도문」(文伍福, 女, 69, 부모 : 종성생; 徐今子, 女, 69, 부 : 종성생; 崔尤玉, 女, 71, 부, 본인 : 온성생), 「훈춘」(金東善, 男, 71, 온성생; 朴善玉, 女, 71, 경원생)

변화와 관련된 어휘들이 논의될 것이다. 다음으로 결론은 본문에서 논의된 중요 내용의 요약 정리로 이루어질 것이다.

## 2. 音韻面

이 장에서는 이 지역어에 존재하는 (1) 음운목록, (2) 음운과정과 음운규칙이 논의될 것이다. 한정된 지면(紙面) 관계로 국어의 일반적인 언어 사실에 대해서는 간단히 논의할 것이며, 이 지역어의 특징적인 언어 사실에 대해서는 압축하여 정밀하게 논의할 것이다.

### 1) 음운목록

음운목록은 음소목록과 운소목록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어에 존재하는 음소 목록은 19개의 순수자음소, 1개의 유음소, 2개의 활음소, 8개의 단(單)모음소 그리고 10개의 이중모음소로 구성되며, 운소목록은 2개의 성조소로 구성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순수자음소 : 19개 /ㅍ(p), ㅍ'(p'), ㅍ<sup>h</sup>(p<sup>h</sup>): ㅌ(t), ㅌ'(t'), ㅌ<sup>h</sup>(t<sup>h</sup>): ㅊ(c), ㅊ'(c'), ㅊ<sup>h</sup>(c<sup>h</sup>);  
ㄱ(k), ㄱ'(k'), ㄱ<sup>h</sup>(k<sup>h</sup>): ㅅ(s), ㅅ'(s'): ㅁ(m), ㄴ(n), ㅇ(ŋ): ㅎ(?), ㅎ(h)/
- ② 유음소 : /ㄹ(l)/
- ③ 활음소 : /j, w /
- ④ 단모음소 : /이(i), 에(e), 애(ɛ), 으(ui), 어(ə), 우(u), 오(o), 아(a)/
- ⑤ 이중모음소(11) : /예(je), 예(jɛ), 여(jø), 우(ju), 요(jo), 야(ja): 위(wi), 웨(we), 웨(wɛ), 워(wø), 와(wa)/
- ⑥ 성조소 : 고조소(高調素 H. '), 저조소(低調素 L. )

위에 제시된 음운목록에서 이 지역어가 가진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순수자음소에 후두 폐쇄음소 'ㅎ(?)'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음소가 설정될 수 있는 근거는 표준어 동사 '뜯(擧), 듣(聞)'과 표준어 어미 '{-은/는}다, -고, -더라, -으면, -어도'에 해당하는 이 지

역어의 동사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실현되는 다음과 같은 음성형에서 찾을 수 있다.<sup>(2)</sup>

- A. 들-(擧) : [든다<sup>1</sup>], [들구], [드더<sup>1</sup>라], [들문], [드러<sup>1</sup>두]  
 B. 들-(聞) : [들른<sup>1</sup>다], [들꾸], [들떠<sup>1</sup>라], [드르문], [드러<sup>1</sup>두]

둘째는 ‘ㄷ, ㅌ, ㅌ, ㄴ, ㄹ, ㅅ, ㅆ’과 ‘ㅅ, ㅆ, ㅅ’이 각각 ‘치음’과 ‘치조음’이라는 것이다. 이들 음소의 음가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다시 말하면 15세기 중부방언의 그것들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그 때문에 이 지역어는, 아래의 자료 A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ㄷ’구개음화를 겪지 않았으며, 자료 B에서 보듯이, 어두 위치에서 ‘ㄴ’이 ‘이’ 앞에서 분포될 수 있고, 자료 C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한국어 방언이 겪은 경구개음 ‘ㅅ, ㅆ, ㅅ’이나 치조 마찰음 ‘ㅅ, ㅆ’ 뒤에서 ‘으’의 전설고모음화를 겪지 않았다.

- A. 티-(치-,打), 띠-(찌-,蒸), 고티-(고치-,改) : /밭 | 이/ → [바티<sup>1</sup>](밭,田)  
 B. 니(이,齒), 님-(입-,着衣), 님-(읽-,讀)  
 C. 쫓-(좃-,狀), 즐-(질-,泥), 쫓-(짖-,裂) : 슨-(싫-,憎)

셋째는 다음에 제시된 자료 A에서 보듯이, 이중모음소는 그 앞에 자음이 없을 때에 분명히 드러나며, 자료 B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자음 뒤에서는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료 C에서 보듯이, 일부의 단어에서는 이중모음이 자음 뒤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 A. 예순(六十), 애장간(대장간), 옛(飴), 양(羊), 유리(琉璃), 용(龍), 원수(怨讐) 등  
 B. 구<sup>1</sup>신(귀신,鬼神), 추<sup>1</sup>미(취미,趣味), 벨<sup>1</sup>(별,星), 뼈<sup>1</sup>(뼈,骨), 계<sup>1</sup>육(계획,計劃), 행<sup>1</sup>기(향기,香氣), 해<sup>1</sup>때(햇대) 등  
 C. 겹(重), 형<sup>1</sup>남(兄), 곁(側), 교<sup>1</sup>통(交通), 흥(兪), 활(弓), 쇠(쇠,鐵) 등

(2) 표준어 동사 ‘들-(聞)’에 해당하는 이 지역어의 동사 활용형을 분석하여 어간이 ‘들-(聞)’이 되어야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崔明玉(1993: 1614-15) 또는 崔明玉(1998: 253-55)를 참조하기 바람.

넷째는 이 지역어의 운소인 성조소와 성조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먼저 성조소 중 '저조소(L)'는 동남방언 전체와, 그리고 '고조소(H)'는 동남방언 중 경남방언 전체와 상반되는 의미 기능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말'이 주격어미 '이'와 통합한 [마<sup>L</sup>리<sup>H</sup>]의 경우, '저조소(L)'를 가지는 '말'은 이 지역어에서는 '말(馬)'을 의미하지만, 동남방언 중 경남방언 전체에서는 '말(語)'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마<sup>H</sup>리<sup>L</sup>]의 경우, '고조소(H)'를 가지는 '말'은 이 지역어에서는 '말(語)'을 의미하지만, 동남방언 전체에서는 '말(馬)'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2음절 어간 성조형에 LL과 3음절 어간 성조형에 LLL~LLH가 존재한다. 표준어 '다리(脚), 바람(風), 뜨겁-(熱), 무겁-(重)' 등은 LL형을 가지며, '부시우-(부사, 照), 축추가-(축축하-, 濕)' 등은 LLL~LLH형을 가진다. '다리가[LLH], 다리부터[LLLH], 바르미[LLH], 바름부터[LLLH], 따각꾸[LLH], 따갑떠라[LLHL], 따가바두[LLLH], 무걱꾸[LLH], 무겁떠라[LLHL], 무거바두[LLLH]'와 '부시운다[LLHL], 부시우더라[LLHLL], 부시우[LLLH], 부시와두[LLLH], 축추가다[LLHL], 축추가더라[LLHLL], 축추가구[LLLH], 축추개애두[LLHLL]' 등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거니와 이러한 어간 성조형은 동남방언이나 강원도의 「명주, 삼척, 영월」 지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끝으로 3음절 이상의 곡용이나 활용에서 '고조(H)'로 끝나는 어절 성조형이 있다. '다리가[LLH], 다리부터[LLLH](脚), 가시가[LLH](荊), 아파두[LLH](아프-, 痛), 비베두[LLH](비바-, 捨), 넘구구[LLH](넘기-, 徒越), 꺼더구[LLH](꺼지-, 陷)' 등. 이러한 성조형은 동남방언이나 강원도의 「명주, 삼척, 영월」 지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2) 음운과정과 음운규칙

### (1) 교체

교체란 형태소와 형태소가 통합할 때에 그 경계에 있는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어미초의 교체는 앞 형태소 내부의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 변동할 수도 있다. 평파열음화, 동화, 경음화, 활음화, 어미초 '아'의 교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제시된 순서에 따라 논의하기로 한다.

### [1] 평파열음화

평파열음화란 어간말의 장애음이 그 위치에서나 어미초의 자음 앞에서 그것이 가진 음소의 특성을 잃고 'ㅂ, ㄷ, ㄱ' 중의 어느 하나로 교체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미파화 또는 불파화(不破化) 또는 평음화라고도 한다.

이 음운과정은 국어 전체에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어간말이나 어미초의 자음 앞에서 양순음은 'ㅂ'으로, 치음과 치조음은 'ㄷ'으로, 연구개음은 'ㄱ'으로 되며, 후음은 그 위치에서 그리고 'ㅅ'이나 'ㄴ'과 같이 격음을 대립쌍으로 가지지 않는 어미초의 자음 앞에서는 'ㄷ'으로 된다. 이러한 사실은 (1)에서 확인된다.

- (1) ㅂ : 압뚜'(<←/앞] 두/) cf. 아페서'(<←/앞] 에서/前), 덩떠'라 cf. 더퍼'서 (땀-覆)  
 ㄷ : 띵뚜'(<←/밑] 두/) cf. 키테서'(<←/밑] 에서/底), 쫘뚜'(<←/꽃] 두/) cf. 꼬제'서(<←/꽃] 에서/花), 얄떠'라 cf. 야타서'(<←/얄-淺), 난'떠라 cf. 나사서'(<←/낫-癒), 절떠'라 cf. 저저서'(<←/젓-潤), 난는다 → 난는다' cf. 나쿠'(<←/낱-産)  
 ㄱ : 꺾떠'라 cf. 꺾꺼'서(꺾-折)

### [2] 동화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동화는 다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① 모음의 자질에 의한 자음의 동화, ② 자음의 자질에 의한 모음의 동화, ③ 모음의 자질에 의한 모음의 동화, ④ 자음의 자질에 의한 자음의 동화가 그것이다. 이 지역어에는 ①에 해당하는 동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②에 해당하는 동화로는 원순모음화가 있고 ③에 해당하는 동화로는 어미초 '아'의 완전순행동화, 어미초 '으'의 완전순행동화가 있다. 그리고 ④에 해당하는 동화로는 비음화, 연구개음화, 양순음화, 유음화가 있다. 이들 동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A. 자음의 자질에 의한 모음의 등화

A.1 전설고모음화 : 이 방언은 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스, 쟈, 츠'이 대부분의 국어방언에서 경구개음인데 반하여, 이 방언에서는 치조음이다. '스, 쟈, 츠'이 치조음이라는 사실은 이 방언이 'ㄷ, ㅎ'의 구개음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어춤(아침, 朝), 즐(질, 泥), 어즈럽(어지럽-, 亂)'이 보여 주듯이, 형태소 내부에서 그들 자음 뒤의 '으'가 전설고모음화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했다. 그리하여 [저즈무](젓-, 潤), [나스무](낫-, 癒)에서 보듯이, 이 방언에서는 어미초의 '으'가 어간말의 치찰음 뒤에서 결코 전설고음화하지 않는다.

A.2 원순모음화 : 여기에는 ① 양순음에 의한 것과 ② 어간말음절의 원순모음에 의한 것이 있다. ①은 어간말의 양순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의 영향으로 어미초의 '으'가 원순모음 '우'로 되는 것이며 ②는 어간말음절의 원순모음의 영향으로 어미초의 '으'가 원순모음 '우'로 되는 것이다.

표준어의 대격어미 '-을'과 향격어미 '-으로'와 주제격어미 '-은'은 이 지역어에서 각각 '-으'와 '-을루' 또는 '-으루'와 '-으느'로 사용된다. 그리고 활용에서 표준어의 조건표시 어미 '-으면'은 이 지역어에서 '-으면'으로 사용된다. 그 사실은 다음의 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다. /술]으/ → [수트] (개오나 = 가져오너라)(술, 炭), /결]을루/ → [겨블'루](결, 側), /산]으루/ → [사느루](산, 山), /밭]으느/ → [바'트느](밭, 田); /신]으무/ → [시느무](신, 履), /닫]으무/ → [다드무](닫, 閉).

그런데 이들 어미의 첫음절 '으'는 어간말의 양순음 뒤에서 원순모음 '우'로 된다. 이 음운과정은 곡용과 활용에 다 존재한다. (2)과 (3)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역어에는 어간말음절의 원순모음 때문에 어미초의 '으'가 원순모음으로 되는 음운과정도 존재한다. 이 음운과정은 활용에만 존재한다. (4)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 a. /툇]으/ → [다'푸] (가래'라)(짚, 藁)  
 b. /앞]을루/ → [아플'루] (간다)(앞, 前)  
 c. /집]으루/ → [지부'루] (간다)(집, 家)

d. /더품 | 으느/ → [더푸'무느] (업파)(거품,泡)

(3) a. /넘 | 으문/ → [너무문] cf. /넘 | 아라/ → [너머'라](넘-越)

b. /덮 | 으문/ → [더푸문] cf. /덮 | 아서/ → [더퍼'서](덮-覆)

c. /뚫 | 으문/ → [털'루문] cf. /뚫 | 아서/ → [털'버서](뚫-濫)

(4) a. /웃 | 으문/ → [우수문] cf. /웃 | 아서/ → [우서서'](웃-笑)

b. /죽 | 으문/ → [주구'문] cf. /죽 | 아서/ → [주거서'](죽-死)

c. /꺾 | 으문/ → [굴구'문] cf. /꺾 | 아서/ → [굴거서'](꺾-太)

cf. /물 | 으/ → [무'르](준다)(물,水)

## B 모음의 자질에 의한 모음의 동화

모음의 자질에 의한 모음의 동화는 어미의 초성 모음이 어간 음절말 모음의 자질에 영향을 받아 그와 같은 자질을 가지는 모음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역어에서 발견되는 모음의 자질에 의한 모음의 동화로는 어미초 '아'와 '으'의 완전순행동화가 있다.

B.1 어미초 '아'의 완전순행동화 : 어미초 '아'의 완전순행동화란, 어간이 '에'나 '에'로 끝날 때에, 어미초의 '아'가 어간말모음과 동일하게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곡용의 경우, 이 음운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X(C){에, 애} | 아(호격)'가 되는데, '/영제 | 아/ → [영제아]'에서 보듯이, 호격어미 '아'는 그 경우에 결코 어간말 모음에 완전순행동화하지 않는다.<sup>(3)</sup> 그러나 활용의 경우는,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미초의 '아'는 어간말 모음에 예외 없이 완전순행동화한다. 그러므로 이 음운과정은 활용에 한정된다.

(5) a. /베 | 아서/ → [베에'서] cf. /배 | 구/ → [배구](배-枕)

b. /빼 | 아서/ → [빼에'서] cf. /빼 | 구/ → [빼구](빼-拔)

c. /돼 | 아서/ → [돼에'서] cf. /돼 | 구/ → [돼구](돼-升)

(3) 이 글에 사용되는 약호(略號)는 다음과 같다.

C = 자음소 V = 모음소 X, Y = 변항, Vb = 동사, Vst = 동사어간, [.] = 형태소 범주, X(C) = XC나 X, a(b,c) = ab와 ac, // = 기저형, [ ] = 음성형, a→b = a는 b로 된다.



B.2 어미초 '으'의 완전순행동화 : 어미초 '으'의 완전순행동화란, '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에서 어간말의 자음이 탈락한 다음에, 어미초의 '으'가 어간말모음과 동일하게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이 음운과정은 곡용과 활용 모두에 존재하는데, 곡용의 경우는 명사가 'ㅇ(η)'으로 끝날 때에, 그리고 활용의 경우는 어간이 후음('ㅎ')으로 끝날 때에 일어난다. 그 예는 (6)과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곡용에서 이 음운과정은 어간말 'ㅇ(η)'이 탈락된 뒤에 일어나는데, 어간말 'ㅇ(η)'은 먼저 그것이 있는 음절 모음을 비음화하고 그 다음에 탈락된다. 예로서, (6a)의 음성형 [쑤우(s'ũũ)]는 기저형 /쑤]으/에서 /쑤(s'ũη)으/ → /쑤(s'ũ)으/ → /쑤우(s'ũũ)/와 같은 음운과정을 거친 뒤에 실현된 것이다.

- (6) a. /쑤]으/ → [쑤'우'(s'ũũ)] (테'파)(웃을 찮다)  
 b. /지병]으/ → [지버'어(cibǝ'ǝ)] (예'라)(지붕을 이어타)  
 c. /간장]으/ → [간자'아(kancǎ'ǎ)](너쿠)(간장을 넣고)
- (7) a. /짚]으문/ → [지이문'] cf. /짚]구/ → [지쿠'](짓-,作)  
 b. /땅]으문/ → [따아문'] c. /땅]구/ → [따쿠']  
 c. /쫘]으문/ → [조오문'] cf. /쫘]구/ → [조쿠']

### C. 자음의 자질에 의한 자음의 동화

자음의 자질에 의한 자음의 동화란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또는 명사)가 통합할 때에 형태소(또는 단어) 경계에 있는 어느 한 자음이 가진 자질의 영향을 받아 다른 한 자음이 그와 같은 자질을 가지는 자음으로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이 지역어에서 발견되는 자음의 동화에는 비음화, 연구개음화, 양순음화, 유음화가 있는데, 이들 자음동화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동남방언에서의 자음동화와 동일하다.<sup>(4)</sup> 자음동화의 유형과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C.1 비음화 : 비음화란 비음(ㅁ,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평파열음화한 어간말의 'ㅂ, ㄷ, ㄱ'이 각각 'ㅁ, ㄴ, ㅇ'으로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8)

(4) 그러한 예로서 崔明玉(1882: 146-52)를 참조하기 바람.

과 (9)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8) a. /밭] 만/ → /밭 단/ → /밤 만/ → [밤만] cf. /탈] 이/ → [바티](밭, 田)  
 b. /작] 만/ → /쌍 만/ → [쌍만] cf. /작] 이(타구)/ → [짜기(타구)] (작, 萌)  
 c. /입] 맛(이)/ → /임 맛(이)/ → [임마(사)] cf. /입] 이/ → [이비](입, 口)
- (9) a. /뽑] 는다/ → /뽑 는다/ → [뽑는'다] cf. /뽑] 아두/ → [포바두](뽑-, 插)  
 b. /달] 는다/ → /단 는다/ → [단는'다] cf. /달] 아두/ → [다다'두](달-, 閉)  
 c. /젓] 는다/ → /절 는다/ → /전 는다/ → [전는'다]  
     cf. /젓] 아두/ → [저저두](젓-, 潤)  
 d. /넉] 는다/ → /녕 는다/ → [녕는'다] cf. /넉] 아두/ → [너저'두](익-, 熟)

C.2 연구개음화 : 연구개음화란 연구개음(ㄱ, ㄲ)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평파열음화한 어간말의 'ㅂ, ㄷ'이나 어간말의 'ㅁ, ㄴ'이 각각 'ㄱ'이나 'ㅇ'으로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10)과 (11)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10) a. /입] 꺼지/ → /익 꺼지/ → [익'꺼지](입, 口)  
 b. /밭] 꺼지/ → /밭 꺼지/ → /박 꺼지/ → [박'꺼지](밭, 田)  
 c. /밤] 꺼지/ → /방 꺼지/ → [방'꺼지] cf. /밤] 이/ → [바'미](밤, 夜)  
 d. /손] 꺼지/ → /송 꺼지/ → [송'꺼지] cf. /손] 이/ → [소'니](손, 手)
- (11) a. /칩] 구/ → /척 꾸/ → [척꾸] cf. /칩] 아두/ → [치바두](춥-, 寒)  
 b. /달] 구/ → /닥 꾸/ → [닥꾸] cf. /달] 아두/ → [다다'두](달-, 閉)  
 c. /젓] 구/ → /절 꾸/ → /적 꾸/ → [적꾸]  
     cf. /젓] 아두/ → [저저두](젓-, 潤)  
 d. /넉] 구/ → /녕 꾸/ → [녕꾸] cf. /넉] 아두/ → [너머'두](넘-, 越)  
 e. /신] 구/ → /싱 꾸/ → [싱꾸] cf. /신] 아두/ → [시너'두](신-, 履)

C.3 양순음화 : 양순음화란 양순음(ㅁ, ㅂ)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평파열음화한 어간말의 'ㄷ'과 어간말의 'ㄴ'이 각각 양순음 'ㅁ'과 'ㅂ'으로 되는 음

운과정을 말한다. (12)와 (13)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12) a. /밭] 만/ → /밭 만/ → /밤 만/ → [밤만](밭,田)  
 b. /옷] 단/ → /은 단/ → /옴 단/ → [옴'단]  
     cf. /옷] 이/ → [오'시](옷,衣)  
 c. /꽃] 만/ → /꼴 만/ → /뽀 만/ → [뽀만]  
     cf. /꽃] 이/ → [모'지](꽃,花)  
 d. /산] 만/ → /삼 만/ → [삼만](산,山)

- (13) a. /밭] 보구/ → /밭 뽀구/ → /뽀 뽀구/ → [뽀뽀'구](밭,田)  
 b. /옷] 보구/ → /은 뽀구/ → /옴 뽀구/ → [옴'뽀구](옷,衣)  
 c. /꽃] 보구/ → /꼴 뽀구/ → /뽀 뽀구/ → [뽀뽀'구](꽃,花)  
 d. /산] 보구/ → /삼 보구/ → [삼보'구](산,山)

C.4 유음화 : 유음화는 어미초의 'ㄴ'이 'ㄹ'로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이 지역어에는 'ㄹ'로 시작하는 두 부류의 어간말 자음군이 있다. 한 부류는 'ㄹ'과 '무성 파열음'으로 구성된 어간말 자음군이며, 다른 한 부류는 'ㄹ'과 '후음('ㅎ, ㅎ')'으로 구성된 어간말 자음군이다. 앞의 자음군을 가지는 동사는 '밝-(明), 맑-(淸), 밟-( 밟, 踏), 얹-(薄)' 등이며, 뒤의 자음군을 가지는 동사는 '앓-(痛), 잃-(失), 황-(黃, 舐), 들-(듣, 聞), 실-(실, 載)' 등이다.

이들 두 부류의 어간말 자음군 중에서, 'ㄹ'과 '무성 파열음'으로 구성된 것들은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모두 'ㄹ'이 탈락한다(자음군단순화 참조). 그러므로 그들 자음군을 가진 어간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어미의 첫음 'ㄴ'이 유음화하지 않는다. 이외는 달리, 'ㄹ'과 '후음('ㅎ, ㅎ')'으로 구성된 것들은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후음이 탈락한다. 그러므로 그들 자음군을 가진 어간과 통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어미의 첫음 'ㄴ'은 유음화한다. 단어 층위에서와 구 층위에서의 유음화는 각각 (14)와 (15)에서 확인된다.

- (14) a. /앓] 는다/ → /알 는다/ → /알 른다/ → [알룬다]  
     cf. /앓] 구/ → [알꾸](앓,痛)  
 b. /실] 는다/ → /실 는다/ → /실 른다/ → [실'룬다]  
     cf. /실] 구/ → [실'꾸](실,載)

- (15) a. /달] [나라/ → /달 라라/ → [달라라](달,月: 나라,國)  
 b. /불] [노리/ → /불 로리/ → [불로리](불,火: 놀이,遊戲)

### [3] 경음화

경음화란 어미나 명사 초의 평음이 경음으로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이 지역어에 존재하는 경음화는 평파열음화한 어간말의 'ㅂ, ㄷ, ㄱ' 뒤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름] 두/ → [바름두], /바름] 부터/ → [바름부터] (바람,風)나 /넘] 구/ → [녕구], /넘] 더라/ → [넘'더라](넘-,越), /신] 구/ → [싱구], /신] 더라/ → [신'더라](신-,履)에서 보듯이, 이 음운과정은 비음으로 끝나는 어간말 뒤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자음근단순화에 의해 남겨진 어간말의 '비음' 뒤에서는 일어난다.<sup>(5)</sup> (16)-(18)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16) a. /밭] 두/ → /밭 뚜/ → [밭뚜], /밭] 보구/ → /밭 뽀구/ → [밭뽀구](밭,田)  
 c. /옷] 두/ → /올 뚜/ → [올뚜], /옷] 보구/ → /올 뽀구/ → [올'뽀구](옷,衣)  
 d. /꽃] 두/ → /꼴 뚜/ → [꼴뚜], /꽃] 보구/ → /꼴 뽀구/ → [꼴뽀구](꽃,花)  
 e. /싹] 두/ → /싹 뚜/ → [싹뚜], /싹] 보구/ → /싹 뽀구/ → [싹뽀구](싹,萌)

- (17) a. /집] 구/ → /꺇 꾸/ → [꺇꾸], /집] 더라/ → /꺇 떠라/ → [꺇'떠라] cf. /집] 아두/ → [꺇'두](집-,縫)  
 b. /달] 구/ → /닥 꾸/ → [닥꾸], /달] 더라/ → /달 떠라/ → [달'떠라] cf. /달] 아두/ → [다'두](달-,開)  
 c. /웃] 구/ → /올 꾸/ → /옥 꾸/ → [옥꾸], /웃] 더라/ → /올 떠라/ → [올'떠라] cf. /웃] 아두/ → [우'두](웃-,笑)

(5) 다만 'ㅃ'에 대해 'ㅍ'으로 대응하는 동사 '삼-(삼-,烹), 굶-(굶-,飢), 닭-(닭-,似)과 통합하는 어미 초의 평음은 자음근 단순화 다음에도 경음화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다.

- a. /삼] 구/ → [상구], / ] 더라/ → [삼'더라]  
 cf. /삼] 아두/ → [삼'두](삼-,烹)  
 b. /굶] 구/ → [궁구], /굶] 더라/ → [굶'더라]  
 cf. /굶] 아두/ → [굶'두](굶-,飢)

- d. /젓 | 구/ → /절 꾸/ → /적 꾸/ → [적꾸], /젓 | 더라/ → /절 떠라/ → [절떠'라]  
 cf. /저 | 아두/ → [저저두] (젓-潤)
- e. /역 | 구/ → /역 꾸/ → [역꾸], /역 | 더라/ → /역 떠라 / → [역떠'라] cf. /역 | 아두/ → [역끼'두] (역-編)
- (18) a. /얏 | 구/ → /안 꾸/ → /양 꾸/ → [양꾸],  
 /얏 | 더라/ → /안 떠라/ → [안떠'라]  
 cf. /얏 | 아두/ → [안자'두] (얏,坐)
- b. /꺄 | 구/ → /꺄 꾸/ → /꺄 꾸/ → [꺄꾸],  
 /꺄 | 더라/ → /꺄 떠라 / → [꺄떠'라]  
 cf. /꺄 | 아두/ → [꺄너'두] (꺄-切)

## [4] 활음화

활음화란 일반적으로 활용에서 '이'나 '우, 오'로 끝나는 어간과 '아Y'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에, 어간말의 '이'나 '우, 오'가 각각 j나 w로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이 지역어에서 j화는 곡용과 활용에서 일어나는데, 먼저 곡용에서의 j화는 '이'로 끝나는 명사에 처격어미 '에'가 통합할 때에 일어난다.<sup>(16)</sup>

- (19) a. /자리 | 에/ → [자레] (안는'다)(자리어 앉는다)(자리,席)  
 b. /총소리 | 에/ → [총소리] (놀'람따)(총소리에 놀랐다)(총성,銃聲)  
 c. /모오기 | 에/ → [모오'개] (물걸'따)(모기에 물렸다)(모기,蚊)  
 d. /태마리 | 에/ → [태마레] (뿔'마루)  
 e. /다리 | 에/ → [다레] (다리,脚)

(19)에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지역어는 자음 뒤에 이중모음 '에'가 분포될 수 없기 때문에, 어간말의 '이'는 j화한 뒤에 다시 탈락된다.<sup>(17)</sup> 그런데 '/머리 | 에/ → [머리'에] (머리,頭), /베까리 | 에/ → [베까리'에] (벧가리)'에서 보듯이, 명사 말 '이'의 j화가 가능한 환경에서도 j화를 보이지 않는 예도 발견된다.

다음으로 활용에서의 j화는 어간의 음절수나 어간말 음절구조에 관계 없이 다 일어난다. (20)에서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음성형을 통해서는 j화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음성형은 기저형에 j

때 '/머리 ] 에/ → [머리'에]](머리, 頭), /베까리' ] 에/ → [베까리'에]](벧가리)'에서 보듯이, 명사 말 '이'의 j화가 가능한 환경에서도 j화를 보이지 않는 예도 발견된다.

다음으로 활용에서의 j화는 어간의 음절수나 어간말 음절구조에 관계 없이 다 일어난다. (20)에서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음성형을 통해서도 j화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음성형은 기저형에 j화와 모음축약, j탈락과 같은 일련의 음운과정이 적용된 뒤에 실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 (20) a. /니 ] 아두/ → [네에'두] cf. /니 ] 구/ → [니구'](이-裁)  
 b. /기 ] 아두/ → [게'에두] cf. /기 ] 구/ → [기구'](기-籠)  
 c. /말기 ] 아두/ → [말게'두] cf. /말기 ] 구/ → [말기구'](말리-仲裁)  
 d. /니피 ] 아두/ → [니페'두] cf. /니피 ] 구/ → [니피구'](입히-使着衣)

다시 말하면, (20)의 경우, (20a)의 음성형 [네에'두]는, '/니 ] 아두/ → /니 어두/ → /니:두/ → /네:두/'에서 보듯이, 기저형에 어미초 '아'의 교체와 j화 그리고 '여'의 축약과 같은 일련의 음운과정이 적용된 뒤에 실현된 것이다. (20a,b)와 (20c,d)에 차이가 있다면, j화의 경우에 어간이 1음절일 때에는 보상적 장음이 발생하지만, 어간이 2음절 이상이면 보상적 장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1)도 j화가 일어난 예이다. 그러나 이들 예는 (20)과는 다른 음운과정을 거친 것이다. 예를 들어 (21a)의 음성형 [터두']는, '/티 ] 아두/ → /티 어두/ → /터두/ → /터두/'에서 보듯이, 기저형에 어미초 '아'의 교체와 어간말 '이'의 j화 그리고 j탈락의 음운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 (21) a. /티 ] 아두/ → [터두'] cf. /티 ] 구/ → [티구'](치-打)  
 b. /띠 ] 아두/ → [떼에'두] cf. /띠 ] 구/ → [띠구'](뛰-走)

---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옳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용정, 도문, 훈춘」에서 서로 다른 조사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 지역어에서 j화한 j는 모두 자음 뒤에서 탈락된다.

이 지역어에서의 w화는, '/영수]아/ → [영수아](\*[영화])'에서 보듯이, 곡용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활용에서만 일어난다. 활용에서는 '우'나 '오'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면, 어간말의 '우'나 '오'는 예외 없이 w화한다.

활용에서의 w화는 어간의 음절수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어간이 1음절인 경우, 이 지역어에서의 w화는, w화 이후에 w탈락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sup>(8)</sup> w화에 의해 어간이 비음절화함에도 불구하고, 명령어미 '-아라'와 통합할 때를 제외하면, 보상적 장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진다. (22)에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 (22) a. /오]아두/ → [와두], /오]나(라)/ → [오'나(라)]  
       cf. /오]구/ → [오구](오,來)  
   b. /꼬]아두/ → [꽂두], /꼬]아라/ → [꽂'라]  
       cf. /꼬]구/ → [꼬구](꼬,索)  
   c. /주]아두/ → [쥐두], /주]아라/ → [쥐어'라]  
       cf. /주]구/ → [주구](주,與)  
   d. /추]아두/ → [취두], /추]아라/ → [취어'라]  
       cf. /추]구/ → [추구](추,舞)  
   e. /누]아두/ → [뉘'두], /누]아라/ → [뉘어'라]  
       cf. /누]구/ → [누구](누,尿)

다음으로 어간이 2음절 이상인 경우, 어간말음절의 초성이 있으면, w화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w탈락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23)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어간말음절이 '연구개음 + ㅏ'이고 그 앞 음절의 모음이 [-저음성, -원순성] 즉 '이, 에, 으, 어'이거나 [+고음성, +원순성] 즉 '우'일 때에 한하여 w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23e)를 포함하여, 동사 '농구-(나누,分), 쫄구-(죄,縮), 바꾸-(換)' 등은 어미 '-아두'와 통합할 때에, '/기달구]아두/ → /기달과두/ → /기달가두/ → [가달가'두]'에서 보듯이, 어간말 '우'의 w화 다음에 w탈락이 일어나서, 각각 [농가'두], [쫄가'두], [바껴두]로 실현되지만, (23b)를 포함하여, 동사 '일구-(일으키,使起), 질구-(절이-,

(8) 그러나 동사 '보-(視)'는 '/보]아두/ → /봐두/ → /바두/ → [바두]'에서 보듯이, 어간모음 '오'가 w화한 뒤에 다시 w탈락의 과정을 거친다.

鹽), 메꾸(메우, 填), 불구(불리, 使增)' 등은 어미 '-아두'와 통합할 때에 각각 어간말 '우'가 w화한 [일궤'두], [질궤'두], [매궤'두], [불궤'두]로 실현된다는 데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3) a. /피우] 아두/ → [피와두'] cf. /피우] 구/ → [피우구'](피우, 吸煙)  
 b. /늘구] 아두/ → [늘궤'두] cf. /늘구] 구/ → [늘구구'](펴-, 伸)  
 c. /마추] 아두/ → [마차'두] cf. /마추] 구/ → [마추구'](맞추, 適中)  
 d. /거두] 아두/ → [거더'두] cf. /거두] 구/ → [거두구'](거두, 收)  
 e. /기달구] 아두/ → [기달가'두] cf. /기달구] 구/ → [기달구구'](기다리-, 待)

끝으로 (24)는 어간말음절이 'C+원순모음+ㅎ'인 경우에 일어나는 w화의 예이다. 그런데 (24a)와 (24b)는 어간음절의 구조가 동일한 데에도 불구하고, 어간말의 후음이 탈락된 다음에 어간말 '우'의 w화는 (24a)에서만 일어나고 (24b)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동사 '좋-(好)'에 w화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24) a. /놓] 아두/ → [놉아'두] cf. /놓] 구/ → [놉쿠'](놓-, 放)  
 b. /좋] 아두/ → [조아'두] (\*[좌아'두] 또는 \*[자아'두])  
 c. /좋] 구/ → [족쿠'](좋-, 好)

#### [5] 어미초 '아'의 교체

이 지역어에 존재하는 부사형어미 '-아Y'의 교체는 어간이 1음절일 때와 2음절 이상일 때에 실현되는 양상이 다르다. 먼저 어간이 1음절일 때에 부사형어미의 첫음 '아'는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이, 에, 으, 어, 우'이면 '어'로 교체한다. 그리하여 어간이 1음절일 때에는 부사형어미의 첫음 '아'는 모음조화를 엄격하게 지킨다고 할 수 있다. (25)와 (26)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sup>(9)</sup>

(9) 다만 표준어 '춥-(寒)'에 해당하는 이 방언의 '춍-'은 어간모음이 '이'이지만, /춍] 아두/ → [치'버두]/[치'바드]에서 보듯이, 부사형어미의 첫음 '아'는 '어'로 교체되기도 하고, (34)의 예들에서 보듯이, 소위 '비'년칙동사의 어간과 통합할 때의 특성대로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기도 한다.



- (25) a. /막 ] 아두/ → [따가'두](막-防), /가 ] 아두/ → [가두](가-去)  
 b. /맷 ] 아두/ → [매바'두](맷-辛), /매 ] 아두/ → [매에'두](매-結)  
 c. /곶 ] 아두/ → [고바'두](곶-麗), /오 ] 아두/ → [와두](오-來)  
 d. /쇄 ] 아두/ → [쇄'에두](쇄-老)
- (26) a. /땃 ] 아두/ → [미뻬'두](땃-擔), /기 ] 아두/ → [게'에두](기-籠)  
 b. /베 ] 아두/ → [베에'두](베-枕), /쥐 ] 아두/ → [쥬'에두](쥐-握)  
 c. /꺾 ] 아두/ → [글거'두](꺾-搖), /쓰 ] 아두/ → [씨두](쓰-書)  
 d. /꺾 ] 아두/ → [꺾꺾'두](꺾-折), /서 ] 아두/ → [서두](서-立)  
 e. /울 ] 아두/ → [우러'두](울-泣), /추 ] 아두/ → [취어'두](추-舞)

이와는 달리, 어간이 2음절 이상이면, 부사형어미의 첫음 '아'의 교체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어간이 '으'로 끝날 때에, 부사형어미의 첫음 '아'는, 어두 음절의 모음이 '아'나 '오'이면 그대로 실현되지만, '이, 으, 어, 우'이면, '어'로 교체한다. (27)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27) a. /바쁘 ] 아두/ → [바에'두](바쁘-忙),  
 b. /고프 ] 아두/ → [고파'두](고프-餓)  
 c. /기쁘 ] 아두/ → [기배'두](기쁘-喜)  
 d. /흐르 ] 아두/ → [홀러'두](흐르-流)  
 e. /불르 ] 아두/ → [불러'두](부르-呼)<sup>(10)</sup>

그리고 어간말 음절모음이 '우'인 경우에, 어두음절의 모음이 '아, 오, 에, 에 (<외)'이거나 어두음절의 모음이 '이'일 때는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이 '아, 오'이면, 부사형어미의 첫음 '아'는 그대로 실현되지만, 어두음절의 모음이 '이(2음절 어간으로서), 으, 어, 우, 에(<에(aj), 여))'이거나 어간이 '피동사 형성어미 + 사동사 형성어미' 즉 '이우'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뒤에서 부사형어미의 첫음 '아'는 '어'로 교체된다. (28)과 (29)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30)에서와 같이, 구조상으로는 부사형어미의 첫음이 '어'로 교체되어야 할 경

(10) 이들 동사의 기저형은 다음과 같다. a. /바쁘(우-으)-/, b. /고프(우-으)-/, c. /기쁘(우-으)-/, d. /흐르(으-르)-/, e. /불르(우-르)-/. 이 증에서 '바쁘-, 고프-, 기쁘-, 흐르-, 부르-'는 '-(으)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며, '바쁘-, 고프-, 기쁘-, 흐르-, 부르-'는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한다.

우에 교체되지 않고 ‘아’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 (28) a. /바꾸 | 아두/ → [바카두] cf. /바꾸 | 구/ → [바꾸구] (바꾸-換)  
 b. /모두 | 아두/ → [모다두] cf. /모두 | 구/ → [모두구] (모으-集)  
 c. /배우 | 아두/ → [배와두] cf. /배우 | 구/ → [배우구] (배우-學)  
 d. /짜우 | 아두/ → [짜와두] cf. /짜우 | 구/ → [짜우구] (짜-曝)  
 e. /기달구 | 아두/ → [기달가두] cf. /기달구 | 구/ → [기달구구] (기다리-待)
- (29) a. /키우 | 아두/ → [키워두] cf. /키우 | 구/ → [키우구] (키우-飼育)  
 b. /드물 | 아두/ → [드무려두] cf. /드물 | 구/ → [드물구] (드물-稀)  
 c. /거두 | 아두/ → [거더두] cf. /거두 | 구/ → [거두구] (거두-收)  
 d. /구불 | 아두/ → [구부려두] cf. /구불 | 구/ → [구불구] (구을-轉)  
 e. /메꾸 | 아두/ → [메꿔두] cf. /메꾸 | 구/ → [메꾸구] (메꾸-填)  
 f. /가리우 | 아두/ → [가리워두] cf. /가리우 | 구/ → [가리우구] (가리-閉)
- (30) a. /피우 | 아두/ → [피와두] cf. /피우 | 구/ → [피우구] (피우-吸煙)  
 b. /켜우 | 아두/ → [켜와두] cf. /켜우 | 구/ → [켜우구] (켜-引火)  
 c. /부시우 | 아두/ → [부시와두] cf. /부시우 | 구/ → [부시우구] (부시-照)

한편 표준어 동사 ‘닦-(磨), 만들-(作)’ 등에 대한 이 방언형 ‘다슬-(磨), 멘들-(作)’ 등과 같이, 2음절 이상의 어간으로서 어간이 ‘ㄹ’로 끝나고 그 음절의 모음이 ‘으’일 때에는, 어두 음절 모음이 어떤 종류이든 관계 없이 부사형어미의 첫음 ‘아’는 ‘어’로 실현된다. 이러한 사실은 (31)에서 확인된다.

- (31) a. /다슬 | 아두/ → [다스려두] cf. /다슬 | 구/ → [다슬구] (닦-磨)  
 b. /멘들 | 아두/ → [멘드려두] cf. /멘들 | 구/ → [멘들구] (만들-作)

어간말이 ‘이’로 끝날 때에는 부사형어미의 첫음 ‘아’는 ‘어’로 실현된다. 그런데 (32)에서 보듯이, 부사형어미의 첫음 ‘아’는 어간말의 ‘이’와 통합하면 언제나 ‘에’로 실현된다. 그것은 어간말의 ‘이’가 부사형어미의 첫음 ‘어(+ 아)’ 앞에서 j로 되고 다음에 이중모음 ‘여’가 자음 뒤에서 ‘에’로 축약되기 때문이

다.

- (32) a. /혀비 | 아두/ → [혀베'두] cf. /혀비 | 구/ → [혀비구'](할퀴-搔)  
 b. /마시 | 아두/ → [마세'두] cf. /마시 | 구/ → [마시구'](마시-飲)  
 c. /만지 | 아두/ → [만제'두] cf. /만지 | 구/ → [만지구'](만지-觸)

끝으로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아'인 어간이나 표준어에서 소위 'ㅂ'변칙동사에 속하는 어간 뒤에서 부사형어미의 첫음 '아'는 그대로 실현된다. (33)과 (34)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33) a. /깨달 | 아두/ → [깨다라'두] cf. /깨달 | 구/ → [깨달꾸'](깨달-覺)  
 b. /비탈 | 아두/ → [비타'라두] cf. /비탈 | 구/ → [비탈꾸'](비탈-捻)

- (34) a. /미끄럽 | 아두/ → [미끄'라바두]  
 cf. /미끄럽 | 구/ → [미끄'럭꾸](미끄럽-滑)  
 b. /어둡 | 아두/ → [어드'바두] cf. /어둡 | 구/ → [어둡꾸'](어둡-暗)  
 c. /가깝 | 아두/ → [가차바'두] cf. /가깝 | 구/ → [가착꾸'](가깝-近)

## (2) 탈락

이 지역어에 존재하는 공시적 음운탈락은 자음탈락, 모음탈락, 활음탈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음탈락에는 후음탈락, 유음탈락, 'ㅇ' 또는 'ㄴ'탈락, 자음군단순화가 있고, 모음탈락에는 어간말 '으'탈락, 어미초 '으'탈락, 어간말 '아' 또는 '어'탈락이 있다. 그리고 활음탈락에는 j탈락과 w탈락이 있다. 이들 탈락을 순서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음탈락

A 후음탈락 : 이것은 유성음 사이에서 어간말의 후음 즉 'ㅎ, ㅎ'이 탈락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35)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35) a. /놓 | 아두/ → [과아'두] cf. /놓 | 구/ → [녹꾸'](놓-放)  
 b. /잃 | 아두/ → [이리'두] cf. /잃 | 구/ → [일꾸'](잃-失)  
 c. /걸 | 아두/ → [거리'두] cf. /걸 | 구/ → [질꾸'](걸-步)

B 유음탈락 : 유음탈락이란 기저 어간말의 ‘ㄹ’이 음성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역어에 존재하는 유음탈락은 다음 세 가지 제약에 의해서 일어난다. 첫째는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이며, 둘째는 형태론적 제약에 의한 것이고 셋째는 음절구조 제약에 의한 것이다. 첫째 제약에 의하여 어간말의 ‘ㄹ’은 어미초의 ‘ㄴ’과 ‘ㄷ’ 앞에서 탈락되며, 둘째 제약에 의하여 어간말의 ‘ㄹ’은 ‘하오체’ 종결어미 ‘-오’와 ‘하압쏘체’ 종결어미 ‘-음Y’ 앞에서 탈락된다. 앞의 두 제약의 예는 각각 (36), (37)에서 보는 바와 같다. 마지막 제약에 대한 논의는 자음군단순화에서 한다.

- (36) a. /놀 | 니/ → [노'니] (=노느냐?) cf. /놀 | 아두/ → [노라'두] (놀-遊)  
 b. /울 | 니/ → [우'니] (=우느냐?) cf. /울 | 아두/ → [우러'두] (울-泣)  
 c. /놀 | 더라/ → [노'더라]  
 d. /울 | 더라/ → [우'더라]

- (37) a. /살 | 오/ → [사'오] cf. /살 | 아두/ → [사라'두] (살-生)  
 b. /울 | 오/ → [우'오] (울-泣)  
 c. /들 | 우/ → [드우'] cf. /들 | 아두/ → [드리'두] (들-擧)  
 d. /살 | 읍(떠마, 떼, 편두)/ → [사압(떠마, 떼, 편두)] (살-生)

C ‘o(η)’ 또는 ‘ㄴ’ 탈락 : ‘o(η)’ 또는 ‘ㄴ’ 탈락이란 기저 어간말의 ‘o(η) (η)’이나 ‘ㄴ’이 음성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역어에서 발견되는 이 음운과정은 곡용에서만 발견되는데, 어간말 ‘o(η)’탈락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일어나며 어간말 ‘ㄴ’탈락은 주격 ‘이’나 계사 ‘이-’가 통합할 때에 일어난다. (38)과 (39)에서 보듯이, ‘o(η)’이나 ‘ㄴ’의 탈락은 먼저 그 앞의 모음을 비모음화시킨 뒤에 일어나는데, ‘ㄴ’탈락은 「용정」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훈춘」과 「도문」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38) a. /콩 | 이/ → [코'이(k'ō'ʔ)] cf. /콩 | 두/ → [콩두] (콩-豆)  
 b. /지병 | 이/ → [지버'이(cibə'ʔ)] cf. /지병 | 두/ → [지병두] (지병)  
 c. /콩 | 이다/ → [코이'다(k'ō'ida)] (콩이다)  
 d. /지병 | 이다/ → [지버'이다(cibə'ida)] (지병이다)

- e. /콩]으/ → [코으'(k'ōō')](콩을)  
 f. /지병]으/ → [지씨'어(cibō'ā)](지병을)

- (39) a. /눈]이(다)/ → [누'이(다)(nū'ī(da))] cf. /눈]두/ → [눈'두](눈, 限)  
 b. /눈]이(다)/ → [노'이(다)(nō'ī(da))] cf. /눈]두/ → [눈'두](눈, 蹠)

㉔ 자음군단순화 : 이것은 표면 음절구조 제약(또는 표면음성 제약) 때문에, 자음군에서 자음('ㄹ' 포함)이 탈락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한국어에서는 ① 어간말에, ②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 ③ 'ㄹ'로 끝나는 어간과 '으'로 시작하는 폐음절 어미 즉 '을, 은, 읊' 등이 통합하여 어미의 '으'가 탈락하는 경우에 자음군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어에는 음절초와 음절말에는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는 표면 음절구조 제약이 있다. ①-③에서의 자음군이 이 표면 음절구조 제약을 어길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자음이 탈락되어야 한다. (40)-(42)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 (40) a. /잡쓰/ → [잡](값價)  
 b. /야들/ → [야들] cf. /야들]이/ → [야들'비](여덟, 八)  
 c. /흙/ → [흙] cf. /흙]이/ → [흙기](흙, 土)
- (41) a. /잡쓰]두/ → [잡뚜](값價)  
 b. /야들]끼지/ → [야들'끼지]여덟, 八)  
 c. /흙]두/ → [흙뚜](흙, 土)  
 d. /엍쓰]구/ → [엍꾸], /엍쓰]더라/ → [엍'떠라](없-無)  
 e. /꺠]구/ → [꺠꾸], /꺠]더라/ → [꺠'떠라](꺠-太)  
 f. /꺠]구/ → [꺠꾸], /꺠]더라/ → [꺠'떠라](꺠-踏)  
 g. /들]는다/ → [들른'다], /들]니/ → [들리](들니)(들-聞)
- (42) a. /살]은 (사람)/ → [살' (싸람)](살-生)  
 b. /살]을 (사람)/ → [살' (싸람)]  
 c. /살]읊쓰/ → [사'알쓰](사십시오)

이 지역어가 보여주는 자음군단순화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 일어난다. (40)과 (41)의 경우, 어간말 자음군이 [+파열음]과 [-파열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파열음]이 탈락하고, [+비음]과 [-비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비음]이 탈락하며, [+구강음]과 [-구강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구강음]이 탈락한다. 이와는 달리, (42)의 경우에는 반드시 어간말의 'ㄹ'이 탈락한다. 그것은 어미의 'ㄴ'이나 'ㄹ' 또는 'ㅂ'이 탈락하면, 형태소의 문법적 기능을 알 수 없게 되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2] 모음탈락

A 어간말 '으'의 탈락 : 이것은, (43)에서 알 수 있듯이, 활용에서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어간말의 '으'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 (43) a. /ㅍ] 아두/ → [꺼두] cf. /ㅍ] 구/ → [꾸구](ㅍ-, 滄)  
 b. /울르] 아두/ → [올라'두] cf. /오르] 구/ → [오르구](오르-, 登)  
 c. /바쁘] 아두/ → [바빠두] cf. /바뿌] 구/ → [바뿌구](바쁘-, 忙)

B 어미초 '으'의 탈락 : 이것은, (44)와 (45)에서 알 수 있듯이, [+모음성]의 자질을 가진 음소 즉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어간과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경우에,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역어에서 이 음운과정은 활용과 곡용에서 다른데, 곡용의 경우, 어미초 '으'의 탈락은 조격 또는 향격 어미 '-으루'의 '으'에 한정된다. 이 지역어에서 대격어미와 주제표시어미는 각각 어휘화된 이형태 '-으, -르'와 '-으느, -느'를 가지는데 '-으와' -으느, 자음이나 'ㄹ'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하고 '-르'와 '-느'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한다. 그 중에서 '-으'와 '-으느'의 '으'는 어간말의 'ㄹ' 뒤에서 탈락되어야 하지만, 그들 어미의 첫음 '으'는 절대로 탈락하지 않는다.

- (44) a. /자] 으루 (제아라)/ → [자'루 (제'에라)] (자, 尺)  
 b. /칼] 으루/ → [칼'루](칼, 刀)  
 c. /두이] 으루 (간다)/ → [두'이루](뒤, 後)  
 d. /뜰] 으루 (간다)/ → [뜰'루](뜰, 野)  
 cf. /펜] 으루/ → [페느루](펜, 筆)

/물]으 (마신다)/ → [무'르], /물]으느/ → [무'르느](물은)(물水)  
 /유리]르/ → [유리르](유리를), /두이]느/ → [두'이느](뒤는)(뒤, 後)

- (45) a. /살]으문/ → [살'문](살-生)  
 b. /살]은 (사람)/ → [산' (싸람)]  
 cf. /막]으문/ → [마'문], /막]은 (사람)/ → [마'근' (싸람)](막-防)

C 어간말 '아' 또는 '어' 탈락 : 이것은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 어간말의 '아'나 '어'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곡용의 경우, '아'로 시작하는 어미로는 호격의 '아'가 있는데, /숙자]아/ → [숙자야]'에서 보듯이, 호격어미 '아' 앞의 어간말 '아'는 결코 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음운과정은 활용에만 존재한다. (46)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46) a. /가]아두/ → [가'두](가-去)  
 b. /만나]아두/ → [만나'두](만나-逢)  
 c. /서]아두/ → [서'두](서-立)

### [3] 활음탈락

활음탈락이란 활음화에 의해 형성된 활음 j나 w가 자음 뒤에서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이 지역어가 가진 음절구조 제약, 다시 말하면, 자음 뒤에 j나 w가 분포할 수 없는 음절구조 제약에 말미암는 음운과정이다. (47)에서 알 수 있듯이, j탈락은, 명사말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곡용에서 일어나고 w탈락은 활용에서 일어난다.

- (47) a. /다리]에/ → /다레/ → /다레/ → [다리'](다리,脚)  
 b. /자리]에/ → /자레/ → /자레/ → [자레'](자리,席)  
 c. /보]아두/ → /봐'두/ → /바'두/ → [바'두'](보-視)  
 d. /바꾸]아두/ → /바'꾸'두/ → /바'까'두/ → [바'까'두'](바꾸-換)

### (3) 첨가

첨가는 형태소 정계에 새로운 음소가 끼어드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이 지역

어에서 공시적으로 발견되는 첨가로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와 호격어미 '-아'가 통합할 때에 일어나는 j첨가가 있다. (48)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48) a. /영수] 아/ → [영수야](영수 : 人名)  
 b. /정애] 아/ → [정애야](정애 : 人名)  
 c. /창식] 아/ → [창시가](창식 : 人名)

#### (4) 축약

이 지역어에 존재하는 축약으로는 자음축약과 모음축약이 있는데, 그것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 [1] 자음축약

자음축약은 형태소 경계에 있는 두 자음이 기존의 어느 한 자음으로 되는 음운과정을 말하는데, 이 지역어에서 발견되는 자음축약으로는 유기음화가 있다. 곱셈에서 유기음화가 가능한 경우는 유기음을 대립적으로 가진 평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공동격어미 기능을 가진 '하구(하고)'가 통합할 때인데, (49)에서 보듯이, 그 경우에는 유기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49) a. /밥] 하구/ → [바'마구](밥,食)  
 b. /밭] 하구/ → [바'더구](밭,田)  
 c. /떡] 하구/ → [떡'가구](떡,餅)

그러나 활용에서는 유기음화가 의무적이다. 활용에서 일어나는 공시적인 유기음화는 'ㅎ'으로 끝나는 어간과 유기음을 대립적으로 가지는 평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에 일어난다. (50)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50) a. /놀] 구/ → [놀'꾸], /놀] 더라/ → [놀'터'라]  
 b. /땅] 구/ → [땅'꾸], /땅] 더라/ → [땅'터'라]  
 c. /맏] 구/ → [맏'꾸], /맏] 더라/ → [맏'터'라]  
 d. /얹] 구/ → [얹'꾸], /얹] 더라/ → [얹'터'라]



## [2] 모음축약

모음축약은 두 개의 모음이 통합하여 기존의 어느 한 모음과 같게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이 지역어에서 발견되는 공시적 모음축약은 활용에서만 발견되는데, 그것은 '이'로 끝나는 어간과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에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어간말의 '이' 뒤에서 어미초의 '아'가 '어'로 되고 다시 어간말의 '이'가 j화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이중모음 '여'가 '에'로 되는 음운과정이 그것이다. (20)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이 모음축약이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은, 한국어의 다른 방언과는 달리, /{지, 치, 짜}/아/에서도 어간말의 '이'가 j화한 뒤에, 이중모음 '여'가 축약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 지역어의 '즈, 츠, 짜'이 경구개음이 아니라 치조음이기 때문이다.

## 3. 語法面

한국어에서 어법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은 서술어와 문법형태다. 서술어는 문 전체의 구성을 통제하며, 문법형태는 종류에 따라 그것과 통합한 성분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거나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며,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 표시와 아울러 문을 종결하는 기능을 행사하기도 하고 문과 문을 결합하는 기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법형태는 크게 곡용어미와 활용어미로 구분되는데, 곡용어미는 다시 적어미와 보조적어미로 구분되며, 활용어미는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연결어미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이들 문법형태 중에서 이 지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논의로서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을 다루고 이 지역어의 문법적 특징을 보여주는 '부정법(否定法)'을 다루고자 한다.

종결어미는 동일한 동사적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도 청자에 대한 화자의 존비감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결어미는 경어등분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이 편리하다. 예컨대 '이것이 책이다'와 같은 서술법은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것이 책이다, 네, 오, 읊니다'와 같이 종결어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지역어의 경어등분은 셋으로 구분된다. '해라체', '하오체', '하압쏘체'의 등분이 그것이다. 칭자를 ① '영수, 순자', ② '여보게, 자네', ③ '아저씨, 아주머니', ④ '아버지, 어머니', ⑤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대상으로 구분할 때에, 이 지역어에서 '해라체'는 ①과 ②의 칭자에게 사용되고, '하오체'는 ③의 칭자에게 사용되며, '하압쏘체'는 ④와 ⑤의 칭자에게 사용된다.

## 1) 서술법

### (1) 해라체

'해라체'에서 서술종결을 표시하는 데에는 어미 '-(은, 는)다, -더라, -으께' 등이 사용된다. 이 중에서 어미 '-(은, 는)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표시하는데, '-다'는 계사와 상태동사의 어간 그리고 선어말어미 '-았-'과 '-겠-'과 통합하고, '-은다'와 '-는다'는 각각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동작동사와 자음으로 끝나는 동작동사 어간과 통합한다. 그리고 어미 '-더라'와 '-으께(<-을께)'는 각각 '과거회상'과 '승낙'을 표시한다. 다음 예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a. 이게 {콩이다, 동다}(이것이 {콩이다, 좋다}).
- b. 난 파리 {잡(았, 겠)다}(나는 파리 {잡(았, 겠)다}).
- c. 집으 간다(집에 간다).
- d. 영수야, 파리 잡는다.
- e. 영수 집으 가더라(영수(는) 집에 가더라).
- f. 파린 내 잡으께(파리는 내가 잡을께).

### (2) 하오체

'하오체'에 사용되는 서술종결어미에는 '-(오, 소), -(음, 습)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오, 소)'는 '일반적인 사실'을 표시하는데, '-오'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서술어의 어간과 통합하고, '-소'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선어말어미와 통합한다. 그리고 '-(음, 습)떼'는 '과거회상'을 표시하는데, '-음떼'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하고 '-습떼'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선어

말어미와 통합한다. '해라체'에서와는 달리, '승낙'을 표시하는 데에는 독립된 어미가 사용되지 않고 '가능'을 표시하는 '-겠-'과 종결어미 '-소'의 통합형인 '-겠소'가 사용된다. 다음 예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a. 이게 콩이오.
- b. 이게 동소.
- c. 집으 가오. 타름이 부오(바람이 부오).
- d. 파리 잡({앗, 겠})소.
- e. 야아, 철수 집으 가압때(예, 철수는 집에 잡디다), 밥으 먹습때(밥을 먹습디다).
- f. 아즈타(니, 이), 파린 내 잡겠소(작은아버지, 파리는 니가 잡겠소).

### (3) 하압쓰체

'하압쓰체'에 사용되는 서술종결어미에는 '-으, 슌꾸마, -(읍, 습)떠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으, 슌꾸마'는 일반적인 '사실'을 표시하는데, 그 중에서 '-으꾸마'는 모음이나 '크'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하고, '-스꾸마'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선어말어미와 통합한다. 그리고 '-(읍, 습)떠마'는 '과거회상'을 표시한다. '-(읍, 습)떠마'는 모음이나 '크'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하고, '-습떠마'는 자음으로 어간이나 선어말어미와 통합한다. 여기서도 '승낙'을 표시하는 데에는 '가능'을 표시하는 '-겠-'과 종결어미 '-스꾸마'의 통합형인 '-겠스꾸마'가 사용된다. 다음 예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a. 이게 콩이꾸마(이것이 콩입니다).
- b. 이게 동스꾸마(이것이 동입니다).
- c. 집으 가꾸마(집에 갑니다), 바름이 부꾸마(바람이 불니다).
- d. 파리 잡({앗, 겠})스꾸마(파리를 잡{앗, 겠}습니다).
- e. 예에, 철수 {집으 가압떠마, 밥으 먹습떠마}({집에 잡디다, 밥을 먹습디다}).
- f. 아바(니, 이), 파린 내 잡겠스꾸마(아버지, 파리는 니가 잡겠습니다).

## 2) 의문법

### (1) 해라체

'해라체'의 의문종결어미로는 '-니, -을까, -더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니'

는 일반적인 사실 확인이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술어의 어간이나 선어말어미와 통합한다. 서술어가 계사인 경우에는 '-야'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을까'는 '추측'을 표시하거나 화자의 '의도'를 알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는데, '추측'을 표시할 때에는 서술어의 주어가 반드시 3인칭이어야 하며, 화자의 의도를 알기 위한 것일 때에는 서술어의 주어가 반드시 2인칭 즉 '칭자'여야 한다. '추측'을 표시하는 경우에, '-을까'는 서술어의 어간이나 선어말어미와 통합하며, 화자의 '의도'를 알기 위한 경우에, '-을까'는 반드시 동작동사의 어간과만 통합한다.<sup>(11)</sup> 한편 '-더니'는 과거 사실을 알기 위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술어의 어간이나 선어말어미와 통합한다. 다음 예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a. 영수야, 이게 너 신발이(니, 야)?(이것이 네 신발이니)?
- b. 영수야, 이게 좋(았, 겠)니(이게 좋(았, 겠)니)?
- c. 영수야, 어디 가니(어디 가니)?
- d. 영수야, 집으 가니(집에 가니)?
- e. 영수야, (너) 집으 갈까(집에 갈까/갈래)? 이게 신발일까?
- f. 영수야, 철수 집으 가더니(철수 집에 가더니)?

## (2) 하오체

'하오체'의 의문종결어미로는 '-(오, 소), -(읍, 습)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오, 소)'는 일반적인 사실의 확인이나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오'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서술어 어간과 통합하며, '-소'는 자음으로 끝나는 서술어 어간이나 선어말어미와 통합한다. 그리고 '-(읍, 습)떼'는 과거 회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읍떼'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서술어 어간과 통합하며, '-습떼'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선어말어미와 통합한다. 그러한 사실은 다음 예에서 확인된다.

- a. 아즈바(니, 이), 이게 아즈바(니, 이) 신발이오(이것이 작은아버지 신발이오)?
- b. 아즈바(니, 이), 이게 좋(았, 겠)소(이것이 좋(았, 겠)소)?
- c. 아즈바(니, 이), 어디 가오(어디 가오)?
- d. 아즈바(니, 이), 집으 가오(집에 가오)?

(11) 이 경우의 동작동사에는 존재사 '있-(有)'도 포함된다.

- e. 아즈바(니,이), 집으 가재이켰소(집에 가지 않겠소)?  
 f. 아즈바(니,이), 철수 집으 (가압, 갔습)떼(철수가 집에 (가, 갔)던가요)?

### (3) 하압쏘체

'하압쏘체'의 의문종결어미로는 '-(으, 습)두, -(으, 습)편두' 등이 있다. '-(으, 습)두'는 일반적인 사실의 확인이나 대답을 요구하고, '-(으, 습)편두'는 과거회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으)두'와 '-(으)편두'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서술어 어간과 통합하며, '-습두'와 '-습편두'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선어말어미와 통합한다. 다음 예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a. 아바(니, 이), 이게 아바(니, 이) 신발임두(이것이 아버지 신발입니까)?  
 b. 아바(니, 이), 이게 동습두(이것이 동습습니까)?  
 c. 아바(니, 이), 어디 갔두(어디 가십니까)?  
 d. 아바(니, 이), {집으 감두, 철수 밥 먹(었, 겠)습두}({집에 가십니까, 철수가 밥을 먹(었, 겠)습니까)?  
 e. 아바(니, 이), 집으 가재이켰습두(집에 가지지 않겠습니까)?  
 f. 아바(니, 이), 철수 {집으 가압편두, 밥으 먹(었)습편두}(철수가 {집에 가던가요, 밥을 먹(었)던가요)?

### 3) 명령법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청유법도 다른 형식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포함시킨다.

#### (1) 해라체

'해라체'의 명령종결어미로는 '-아라'와 '-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아라'는 청자의 일방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에 사용되고 '-자'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명령에 사용된다. 모두 동작동사 어간과 통합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a. 영수야, 파리 잡아라.  
 b. 영수야, 그렇게 허에라.

c. 영수야, 집으 가자(집에 가자).

## (2) 하오체

‘하오체’의 명령종결어미로는 ‘-오, 소’와 ‘-기요’ 등이 있다. ‘-오, 소’는 청자의 일방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에 사용되는데, ‘-오’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동작동사 어간과 통합하며 ‘-소’는 자음으로 끝나는 동작동사 어간과 통합한다. ‘-기요’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명령에 사용된다. 모두 동작동사 어간과 통합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a. 아즈바(니.이), 파리 잡소(파리 잡으오).
- b. 아즈바(니.이), 그렇게 하오
- c. 아즈바(니.이), 집으 가기요(집에 잡시다).

## (3) 하압쏘체

‘하압쏘’의 명령종결어미로는 ‘-읍쏘’와 ‘-깁쏘’ 등이 있다. ‘-읍쏘’는 청자의 일방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에 사용되고 ‘-깁쏘’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명령에 사용된다. 모두 동작동사 어간과 통합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a. 아바(니, 이), 파리 잡읍쏘(파리 잡으십시오).
- b. 아바(니, 이), 그렇게 하압쏘(그렇게 하십시오).
- c. 아바(니, 이), 집으 가깁쏘(집에 가십시오).

## 4) 부정법

이 지역어의 부정법에는 다음 4가지 유형이 있다. ① {아이,<sup>(12)</sup> 못} [Vb, ㅌ상태], ② [Vb,-상태] ]<sub>Vst</sub> {지, 다} 말-, ③ [Vb,ㅌ상태] ]<sub>Vst</sub> {재,대}(이)ㅎ, ④ [VbL,-상태] ]<sub>Vst</sub> 아 {아이, 못} [Vb2,-상태]가 그것이다.

(12) 「훈춘」에서는 ‘아니’가 사용되고 「도문」에서는 ‘야니’와 ‘아이’가 사용되며, 「용정」에서는 ‘아이’가 사용된다. 이처럼 ‘아니’와 ‘아이’ 중 어느 하나를 이들 지역어의 대표적인 어형이라고 정하기 어렵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아이’를 대표로 제시한다.

## (1) {아이, 못} [Vb, ±상태]

이 부정법은 문의 서술어가 하나의 동작동사나 상태동사일 때에, 그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경우에 부정은 서술어 앞에 부정부사 '아이'나 '못'을 첨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서술어가 동작동사(존재동사 '있-' 포함)일 때에는 '아이'나 '못'이 서술어 앞에 첨가될 수 있지만, 서술어가 상태동사일 때에는 '아이'만이 서술어 앞에 첨가될 수 있다. 그에 대한 예는 (1)과 같다.

- (1) a. 내 딸은 {아이, 못} 듣는다.  
b. 산이 {아이, \*못} 크다.

(2) [Vb, -상태] |<sub>vsl</sub> {지, 디} } 딸-

이 부정법은 문의 서술어가 하나의 동작동사일 때에, 그 서술어의 동작을 금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경우에 부정은 서술어의 어간에 어미 '-지'나 '-디'와 동사 '딸-(勿)'이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 (2) a. 절대 밤에 집으 비우{지, 디} 딸라(절대로 밤에 집을 비우지 마라).  
b. 파리는 잡{지, 디} 딸라(파리는 잡지 마라).

(3) [Vb, ±상태] !<sub>vsl</sub> {재, 대} 일

이 부정법은 문의 서술어가 하나의 동작동사나 상태동사일 때에, 그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경우에 부정은 서술어의 어간에 부정의 어미를 첨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부정법은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아이, 못} [Vb, ±상태]'의 부정법과 동일하지만, 부정부사 '아이'나 '못'을 서술어 앞에 첨가하는 대신 부정의 어미를 서술어의 어간에 통합시킨다는 점에서는 '{아이, 못} [Vb, ±상태]'의 부정법과 구별된다.

그런데 서술어의 어간에 통합하는 부정의 어미에 대해서는 잠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부정법에 사용되는 부정의 어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한 것은 정용호(1988 : 245-47)이다. 정용호(1988 : 246)는 부정의 어미를 줄임형태 '-재'라고 칭하고,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줄임형태 '-재'는 '-지 아니하다'가 준 형태로서 서술어의 어간과 종결어미의 사이에 끼여 그 둘을 결합시키는 기능을 가지며, 그것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는 부정의 의미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sup>(13)</sup>

줄임형태 '-재'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정용호의 관점은 매우 타당하지만, 줄임형태를 '-재'로 본 점이나 그것을 '-지 아니하다'가 준 것으로 본 점은 타당하지 못하다. 먼저 줄임형태를 '-재'로 본 점은 정용호(1988 : 245-47)에 제시된 예와 이 지역어에 대한 다른 조사자의 예에서 해당 형태가 포함된 서술어를 분석함으로써 그 부당성이 드러난다.

- (3) a. 앞이 잘 배우재오(앞이 잘 보이지 않소).  
 b. 그렇기 하무 올체이오(그렇게 하면 옳지 아니하오).  
 c. 그 집에 딸이 없재켰소(그 집 딸아들이 없지 않을까)?  
 d. 지슴 매재꾸는 소출이 인나오(김을 매지 않고는 소출이 나지 않소).  
 「이상 정용호(1988 : 245-47)의 예」  
 e. 놀재이쿠[...](놀지않고)「집필조 1993 : 179」  
 f. 그러테니오(그렇지 않소)?「도문」  
 g. 뛰대니쿠(뛰지 아니하구)「도문」

(3a-g)에서 해당 형태를 포함하는 서술어 'a. 배우재오 b. 올체이오 c. 없재켰소 d. 매재꾸는 e. 놀재이쿠 f. 그러테니오 g. 뛰대니쿠'는 각각 a. '배우(어간)-재-오(종결어미)', b. '올(어간)-재이-오(종결어미), c. 없(어간)-재-켰(선어말어미)-소(종결어미), d. 매(어간)-재-꾸(는)(연결어미), e. 놀(어간)-재-잉-구, f. 그렇(어간)-대니-오(종결어미), g. 뛰(어간)-대-닝-구'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우리는 줄임형태가 '재' 외에 '재이'가 있으며, 그 외에 '쟁'과 '재잉'은 물론 '대니'와 '대닝'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

(13) 원문은 다음과 같다. "줄임형태 <~재>는 <~지 아니하다>의 준 형태로서 말 뿌리나 말줄기와 종결토햄과의 사이에 위치하면서 두 형태부를 결합시키는 구실을 하며 매우 축약된 형태인것만큼 줄임형태 <~재>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는 어디까지나 부정의 의미와 많이 관련되고 있다." (p.246)



와 '재이'와 '대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되고, '쟁'과 '재임'과 '대닐'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재'와 '재이'와 '대니'는 모두 동일한 환경 즉 어간과 종결어미 '-오' 사이에서 실현되며, '쟁'과 '재임'과 '대닐'도 동일한 환경 즉 어간과 연결어미 '-구' 사이에서 실현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재, 재이, 대니'와 '쟁, 재임, 대닐'은 상보적 분포를 이루므로 '재'와 '쟁', '재이'와 '재임' 그리고 '대니'와 '대닐'은 각각 한 형태소의 이형태 관계에 있으며, '재/쟁'과 '재이/재임'과 '대니/대닐'은 서로 다른 형태소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와 '재이'와 '대니'는 각각 형태소 즉 기저형 '쟁'과 '재임'과 '대닐'이 모음 '애' 또는 '이'와 어미의 모음 사이에서 'ㅎ'가 탈락한 뒤에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와 '쟁', '재이'와 '재임', '대니'와 '대닐'은 각각 이형태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쟁'과 '재임'과 '대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형태소 즉 기저형으로 하여 다른 형태의 도출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각각 다른 형태소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sup>(14)</sup>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정용호(1988 : 246)가 말하는 부정의 어미 즉 줄임 형태는 '재'가 아니라 '쟁'이나 '재임'이나 '대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쟁'이나 '재임'이나 '대닐'은 역사적으로 부정의 어미 '-지'와 '아니하'나 '디'와 '아니호'가 통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즉 '재임'은 '지 | 아니하 > 자니하 > 재임'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며, '대닐'은 '디 | 아니호 > 다니호 > 대닐'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쟁'은 '재임'에서 '이'가 탈락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현재 이 지역어에는 자음 뒤에서 '야'가

(14)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른 형태소'는 의미나 문법적 기능이 다른 형태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함께 실현되기는 하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며 의미나 문법적 기능이 일치하므로 서로 다른 형태소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보다는 이형태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것을 도출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형태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굳어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형태소'는 그것들이 모두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할 '어휘화된 이형태 (lexicalized allomorph)'를 뜻하는 것이다.

'애'로 되는 공시적 음운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쟁-'나 '재잉-'이나 '대녕-'이 독립된 서술어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나 '재잉'이나 '대녕'은 하나의 문법형태로 굳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문법형태는 서술어의 어간과 어미(선어말어미 포함) 사이에서 실현되며 서술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정표시'의 선어말어미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옳겠다.

다음으로 '-재'를 '-지 아니하다'의 줄임 형태로 보는 견해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재'가 '-지 아니하다'의 줄임 형태라면 그 줄임의 과정이 설명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한 설명 방안을 찾을 수도 없다.

그러나 부정표시의 선어말어미를 필자가 제시한 '{재,대}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변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어미 '{-지, -디}'가 서술어 어간 '아니하-'와 통합하고 그 다음에 어미 '{-지, -디}'의 '이'가 활음화한 뒤에 어간의 두음 '아'와 합하여 '{자,디}'로 된다. 한편 전시기의 '가름하-'나 '향(香)' 등이 이 지역어에서 각각 '개름하-'나 '행'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어에 자음 뒤의 '야'가 '에'로 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 '{자,디}'가 '{재,대}'로 변한 것도 그러한 변화에 말미암은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재,대}니하'가 형성된 것이다. 이 형태는 이 단계에서 이미 문법형태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재,대}니하'가 어미 '{-지, -디}'와 서술어 '아니하-'의 통합체로서 서술어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재,대}니하'는 독립된 서술어의 기능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재,대}니하'는 다시 도음과 '이' 사이에서 '니'이 탈락하고 마지막 음절 모음의 '야'가 탈락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형태인 '{재,대}잉'으로 되었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재'는 '-지 아니하다'의 줄임 형태가 아니라 '-지 아(니하-)'의 줄임 형태이며, '-지 아니하-'의 줄임 형태는 '재잉'이다.

#### (4) [Vb1,-상태] ]<sub>Vst</sub> 아 (아이, 못) [Vb2,-상태]

이 부정법은 서술어가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구성될 때, 보조동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구성될

때에, 한국어의 부정법은 본동사 앞에 부정부사 '아니'나 '못'을 두거나 보조동사의 여간과 '-지 {안, 못}하다'를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런 것 {안, 못} 먹어 보았다'나 '우리는 그런 것 먹어 보지 {안, 못}했다'가 그러한 예가 된다. 그러나 서술어가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구성될 경우에, 이 지역어의 부정법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경우에 이 지역어의 부정법은, (4)에서 보듯이, 보조동사 앞에 부정부사 '아이'나 '못'을 넣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식의 부정법은 일찍이 동북방언이 가진 한 가지 특징으로 지적되어 왔다(한영순 1967 : 191, 김병제 1975 : 7-8 등).

- (4) a. 이 마르 알아 {아이, 못} 듣는다(이 말을 알아 듣지 {안, 못}한다.)  
 b. 지붕까지 올레 {아이, 못} 놓그(지붕까지 올려 놓지 {안, 못} 하고)  
 c. 집으루 돌아 {아이, 못} 간다(집으로 돌아 가지 {안, 못}한다.)

#### 4. 語彙面

어휘는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여러 부류로 나누어지며, 그 수 또한 열거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지역어가 지닌 몇 가지 어휘적인 특징을 보이는 범위 안에서 친족명칭과 인치, 민속, 곡식, 식품, 도구, 동식물 등의 어휘 그리고 음운변화와 관련된 어휘들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논의하도록 하겠다.

〈표 1〉

표준어		원별어		표준어		원별어	
1	증조할아버지	y노'아바니, h노'크라바니		2	증조할머니	y노'아메, h노'크니메	
3	할아버지	h.y아바네'(呼), n.y아바'(L)이, t크라타'니(呼/指)		4	할머니	h.y아'매,t크나'매(呼/指)	
5	아버지	y아부제', y아바지'(呼) 아부지'(指)		6	어머니	제에'마>엄'마(呼) 제에'미(指)	
7	큰아버지	h모다카'네:(呼), {마,h모다카'(L)이(指)}		8	큰어머니	{마,모'다'메	
9	작은아버지	h아즈바'네:(呼), 아즈바'(h,t,n,y)이, n.y삼촌'(이)		10	작은어머니	h.y'즈마'(L)이	
11	고모(上)	h.y마,h,t모'타'리		12	고모부(上)	{마,모'다카'니	
13	고모(下)	아'제		14	고모부(下)	아즈바'(n,y)	
15	형님	{h,t형,y형'님'(이)}		16	형수	아즈카'네:(呼) 아즈마'(L)이(指)	
17	남동생	동세'애		18	남동생덕	테수'/제수'	
19	생질(男)	남조'케		20	생질(女)	여조'케	
21	외삼촌(上)	외'모'마'다'바'이		22	외숙모(上)	외'모'카'다'메	
23	외삼촌(下)	외'삼'촌'(이)		24	외숙모(下)	외'삼'촌'피'기	
25	이모부(上)	외'도'다'카'이		26	이모(上)	외'모'마'다'메	
27	이모부(下)	외'아'즈'바'이		28	이모(下)	외'아'제	
29	차할아버지	가'스 {y아바'니,h크라바'니}		30	차할머니	가'스 {y아'메,h크나'메}	
31	장인	y가'스'아부지,h가'세'애'비'		32	장모	가'세'에'미'	
33	처남(上)	큰' 처'남'(이)		34	처남덕(上)	처'네'무'덕'(이)	
35	처남(下)	차'근' 처'남'(이)		36	처남덕(下)	처'네'무'덕'(이)	
37	시아버지	y아'판'남'(呼/指)		38	시아머니	y아'판'남'(呼/指)	
39	시숙	아'즈'만'님'		40	시동생	세'위'니'(呼), 스'에'끼(指)	
41	시누이(上)	형'님'		42	시누이(下)	y'스'누'비, h,t'스'노'비'	

  

11 : 아버지의 누님	13 : 아버지의 여동생	y : 용정시	呼 : 호칭
21 : 어머니의 오빠	23 : 어머니의 남동생	t : 도분시	指 : 지칭
26 : 어머니의 언니	28 : 어머니의 여동생	h : 훈춘시	
33 : 부인의 오빠	35 : 부인의 남동생	外 : y'애', h,t'에'	
41 : 남편의 누님	42 : 남편의 여동생		

제시된 <표 1>은 친족명칭에 대한 어휘이다. 친족명칭은, '나=남편'을 기준으로 하면, 크게 '친가(親家), 외가(外家), 처가(妻家)'의 친족명칭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고, '나=아내'를 기준으로 하면, '친가(親家), 외가(外家), 시가(媿家)'의 친족명칭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여기서 '나'가 누구이든 간에 '친가(親家), 외가(外家)'의 친족명칭은 동일하므로, 친족명칭의 고찰 대상은 '친가(親家), 외가(外家), 처가(妻家), 시가(媿家)'의 친족명칭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네 부류의 친족명칭을 대상으로, 이 지역어에서 사용되는 친족명칭

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표 1〉에서 1-20은 '친가'의 친족명칭이고 21-28은 '외가'의 친족명칭이며, 29-36은 '처가'의 친족명칭이다. 그리고 37-42는 '시가'의 친족명칭이다. 이 지역어에서 사용되는 친족명칭은 '나'보다 윗 항렬에서 그 특징이 드러난다.

서술의 편의상 지칭을 기준으로 하면, '친가'의 경우, 1과 2는 각각 '노-아바니, 노-크라바니'와 '노-아매, 노-크나매'로 분석된다. 이 명칭은 2와 4의 명칭에 '노(老)'가 통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7과 9는 '만/몰-아바니'와 '아즈-(아)바니'로 분석되는데, '만/몰'은 앞 시기의 '문(伯)'에서 변한 것으로 '큰'의 의미를 가지며, '아즈'는 앞 시기의 '아즈(아승(弟))'에서 변한 것으로 '작은'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분석은 8과 10에도 적용되어 8은 '만/몰-아매'로 10은 '아즈-(아)바니'로 분석된다. 여기서 '만/몰'과 '아즈'를 분리하면, '아바니'와 '아매(<아마이<아마니)가 남는다. 이 명칭은 7과 9, 8과 10 사이에 있는 5와 6의 명칭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3과 4는 각각 5와 6의 명칭에 한 항렬의 위를 나타내는 '큰'이 통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지역 모두 5와 6의 명칭은 각각 '아부지'와 '제에미'일 뿐 '아바니'와 '아매'가 아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실마리를 우리는 31과 32, 37과 38에서 찾을 수 있다. 31의 '가세애비'와 32의 '가세에미'는, 29와 30을 고려하면, 각각 '가스-애비'와 '가스-에미'로 분석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아내'를 나타내는 '가스(<갓)'가 각각 '아비'와 '어미'와 통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sup>(15)</sup> 그리고 37의 '아반님'과 38의 '아만님'은 각각 '아바 -스-님'과 '아마 -스-님'으로 분석될 수 있고 '아비-아스-님'과 '아마-아스-님'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런데 앞의 분석은 〈표 1〉에 제시된 어떤 명칭과도 관련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뒤의 분석은 31의 '애비'와 32의 '에미'와 관련된다.<sup>(16)</sup>

(15) '갓'이 '아내'를 나타내는 예는 '그딛 가시 드외아 지라'月 1:11b』과 '臣下의 갓들히'月2:28b』에서 찾을 수 있다.

(16) 이 경우에 '아미'와 '어미'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훈춘」은 모음과 '이' 사이에서 'ㄴ'이 탈락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아매'가 '아미-아니 > 아마니 > 아마이 > 아매'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아매'는 '어미'와는 관계없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1과 3에서 분석된 '아바니'는 앞 시기에 '아비'와 접미사 '-아니'가 통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6의 명칭에 앞 시기의 '어미'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다시 말하면, 6의 '제에미'는 '제(자기)'와 '에미'로 분석되는데, '에미'는 앞 시기의 '어미'가 소위 올라우트에 의해 변화된 것이다.

한편 5의 명칭은 '아비'와 접미사 '{아,어}지'가 통합하여 '아(바,버)지'로도 형성되었다. 5의 호칭 '아부제'나 '아바지'와 지칭 '아부지'가 그렇게 형성된 명칭이거나 그런 명칭이 변화된 명칭이다. 이들 명칭은 원래 이 지역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어나 교육을 통하여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1.3.7.9 등에 접미사 '-아니'가 통합한 명칭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 지역어에서 3과 4, 1과 2의 명칭은 원래 5와 6의 명칭이던 '아바니'와 '아메'에 한 항렬 위와 두 항렬 위를 나타내는 '큰'과 '노'가 통합하여 각각 형성된 것이고, 7과 8, 9와 10은 '아바니'와 '아메'에 '맨 위'를 나타내는 '믄'과 '아래'를 나타내는 '아즈'가 통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한편 이 지역어의 친족명칭이 가진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2, 21, 25와 11, 22, 26에게 각각 7과 8의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며, 14과 27에게는 9의 명칭인 '아즈바니'가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경기 이남에서 사용되는 '고모, 이모'나 '고모부/작숙, 이모부/이숙'이라는 명칭과 대조하면 이 지역어의 명칭은 미분화된 셈이다. 다음으로 13과 28에게 '아재'라는 명칭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명칭은 경기 이남에서는 남자에게 사용되는 것이다.<sup>(17)</sup>

(17) 경기 이남에서 '아재'가 여자에게 사용된다는 사실은 李翊燮(1976)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바 있다.

〈표 2〉

표준어		연변어		표준어		연변어	
1	입술	입쑤(이)		2	혀	세, 세띠(이)(후)	
3	저드탕	재개(머)		4	배꼽	배뽕(이)	
5	가랑이	다달(이)		6	복사매	고들(이)매(이)	
7	미듬	미늘, 퍼리메늘		8	다리끼	다라치(上), 께에지(下)	
9	다리(鬚)	달비(이)		10	감기	형불(이)장기	
11	하품	하팸(이)		12	졸음	자부림(이)	
15	간난아이	가(h,t,z,y)스난 h,y아(이), 아(애)기		14	들(期)	들(이)쓰(이)	
15	기저귀	차개(이)		16	숨박꼭질	[곰, 뽕치올래(이)기]	
17	웃	y,t유끼, t누끼		18	도	뽕(이)	
19	개	h,기, y개		20	질	질	
21	웃	h,t쑤(이), y쑤(이)		22	모	뽕(이)	
23	머리(가 좋다)	글(이 좋다) = 영리하다		24	황겨	이시개(이)	
25	팔	태(이)		26	수수	뽕수끼(이)	
27	옥수수	옥수끼(이)		28	수제미	뜨데꼭(이)	
29	새알심	오구람(이)		30	국물	장물(이)	
31	누룽지	가메치, t가머티		32	늘은밥	y가메치, h,t물가머치, 티(이)	
33	코딩	추미(이)		34	프우말랭이	무(이,수)생거리(이)	
35	엿기름	쌍누룩(이)(쌍-누룩)		36	가루(粉)	갈기, 갈그(이)	
37	이남박	물람박(이)(물-함박)		38	어래미	얼경채(이)	
39	시루(甑)	실기(이)		40	숯(炭)	술(이)	
41	반질고리	기뚜황지(이)		42	살강	뽕매(이)	
43	굴뚝	구(이)새		44	되리	따바리(이)	
45	서랍	뽕비(이)		46	재봉틀	머선(이)	
47	성냥	비지개(이)		48	거울	세(이)경	

제시된 〈표 2〉에서 1-15는 인체 및 사람 관계 어휘고 16-22는 민속 어휘며, 24-36은 곡식 및 음식 관계 어휘다. 그리고 37-48은 도구 관계 어휘다. 이들 어휘 중에서 36, 39와 4는 각각 중세한국어에서 특수어간 교체를 보이던 명사와 '빛복'의 계승자라 하겠으며, 9, 12, 44는 어중에 '병'을 가졌던 것으로서 이 지역어가 '병 > 비'의 변화를 경험했음을 알려준다.

〈표 3〉

그리고 〈표 2〉에서 17, 25, 26, 27, 34의 'X-기'와 15, 16, 24, 35, 37, 45의 '차-개', '곰치우을-내기', '아시-게(〈겨〉)', '씩-누룩', '뜰-함박', '뽕-이' 등은 단어 형성과 관련된 어휘인데, 뒤의 것은 후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		연변어		표준어		연변어	
1	두루마기	제매기		2	거품	더품(이)	
3	거스름돈	승찬		4	티(塵)	티제기	
5	뒤(後)	두이		6	벌레	벌저지	
7	(노른)자위	자사		8	노을(霞)	느불(이)	
9	하루	h.t할름, y할라		10	저녁	저낙	
11	헤무리	h.t햄머리, y해머리		12	헤마라기	해(자,개)불,부리	
13	냉이	나사		14	부추	염지	
15	머루	말(h.t키,y기)		16	덩쿨	너울(이)	
17	소(牛)	t.y새, h세		18	강아지	개에지	
19	고양이	크네		20	병아리	바우리	
21	거위	게사나		22	돼지	돔(이)	
23	여우	여까		24	노루	놀가지	
25	모자라(不足)	모즈라		26	싫-(厭)	슌	
27	질-(泥)	즐		28	짖-(吠)	죇	
29	찢기-(被裂)	즈끼-		30	쓰-(苦)	슌	
31	짜-(鹽)	잡		32	걸-(步)	꺄	
33	싣-(載)	슌		34	묻-(問)	물	
35	깨닫-(覺)	깨달		36	굵-(膿)	곰-	
37	굶-(飢)	굶-		38	답-(似)	담-	
39	삶-(烹)	삼-		40	젖-	젼-	
41	졸-(眠)	저불-		42	구름-(轉)	구블-	
43	기울-(傾)	기블-		44	여위-(瘦)	{t,y여,h,t예}비-	
45	파리(蠅)	포리		46	말-(伯)	문	
47	빨-(吮洗)	빨-		48	밟-(踏)	붐-	

앞에 제시된 〈표 3〉에서 1-11은 기타 어휘들이고 12-24는 식물 및 동물 어휘며, 25-48은 음운변화와 관련된 동사들이다. 1-24에서 9와 24는 중세한국어



의 특수어간 교체 명사와 관련된 것이고, 6과 15는 어종의 'ㄱ'과 관련된 것으로 'ㄹ' 뒤에서 'ㄱ'이 탈락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7과 13은 'ㄷ > 시'의 변화를 겪은 것이며, 8과 12는 '병 > ㅁ'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한편 25-29는 '스, 츠, 쪄'과 '스, 씨' 뒤에서 '으 > 이'의 변화를 겪지 않은 것인데, 이 사실은 현재 이 지역어에서 그들 자음소가 각각 '치경음'과 '치음'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리고 30-31은 개음절 어간의 형용사에 'ㅁ'이 첨가된 것이며 32-35는 소위 'ㄷ'변칙동사의 어간말자음이 'ㅁ'로 재구조화된 것이다. 또 36-40은 '곰꾸, 곰마서(膿)'에서 알 수 있듯이, 어간말 자음군 'ㅁ'이 'ㅁ'으로 변한 것이고, 41-44는 '병 > ㅁ'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끝으로 45-48은 어두에 있던 '으'가 양순음 뒤에서 '오'로 변화한 것이다.

〈표 4〉

표준어		연변어		표준어		연변어	
1	읽-(讀)	남, y니르-	2	이-(지붕을)	네-		
3	이-(머리에)	니-	4	입-(웃을)	남-		
5	익-(熟)	닉-	6	잇-(繼)	닛-		
7	짙-(搗)	핑-	8	치-(시험을)	티-		
9	찌-(蒸)	띠-	10	찌-(啄)	떡-		
11	치-(打)	타-	12	다치-(傷)	다타-		
13	던지-(投)	테디-	14	부러지-(折)	불거디-		
15	달리-(撫)	달개-	16	말리-(仲裁)	말기-		
17	별리-(隔)	별기-	18	절이-(鹽)	절구		
19	조르-(使縮)	졸구	20	돌리-(使廻)	돌구		
21	알리-(使知)	알기-	22	얼리-(使氷)	얼구		
23	블리-(使增)	블구	24	긋(劃), 끌(引)	프스-		
25	늦-(晚)	느지-	26	숙(慣引)	소꾸		
27	쌌-(비람)	쌌우	28	죄-(불을)	죄우		
29	와(誦)	왜우	30	쫓(追)	쫓추		
31	엿보-(窺)	여스보-	32	무르-(軟)	{무르-뭉}-		
33	마르(裁)	{마르-뎀}-	34	읽-(讀)	{니르-남}-		
35	자르-(斷)	{자르-잡}-	36	짧-(短)	{짜르-잡}-		
37	바르-(正)	{바르-뎀}-	38	바르-(배를)	{바르-뎀}-		
39	누르-(壓)	누(루-르르)-	40	부르-(呼)	부(루-르르)-		

앞에 제시된 〈표 4〉도 음운변화와 관련된 동사이는데, 1-6은 어두에서 '이'와

j 앞의 'ㄴ'이 탈락되지 않은 것이며, 7-14는 'ㄷ, ㅌ, ㅌ'이 '이'와 j 앞에서 구개음화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15-23은 사동어미 '기'나 '구'가 어간말의 'ㄹ' 뒤에서 탈락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24-31은 앞 시기의 어형을 계승하거나 어간의 확대를 보이는 것인데, 24와 26은 앞의 예에 속하고 나머지는 뒤의 예에 속한다. 특히 27-29는 어간말에 '우'가 첨가한 것이다.

그리고 32-38은 '무르고, 물거서(軟)'나 '마르고, 말가서(裁)'에서 보듯이,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이다. 39와 40도 통합하는 어미의 첫 환경에 따라서 어간의 재구조화가 달리 일어난 것인데, 32-38과 다른 것은, 39와 40은 '-(으)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간말의 '으'가 앞 음절의 원순모음에 동화하여 '우'로 되고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X르-'가 'X르르-'로 재구조화한 것이다.

## 5. 結 論

지금까지 필자는 연변지역어의 공시적 언어현상을 음운면, 어법면, 어휘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음운면에서,

(1) 이 지역어는 19개의 순수자음소(/ㅈ, ㅉ, ㅊ; ㄷ, ㅌ, ㅎ; ㅅ, ㅆ, ㅊ; ㄱ, ㅋ, ㆁ; ㅌ, ㄴ, ㅇ(η); ㅎ, ㅎ/, 1개의 유음소(/ㄹ/), 2개의 활음소(/j, w /), 8개의 단(單)모음소(/이, 예, 에, 으, 어, 우, 오, 아/ 그리고 10개의 이중모음소(/예, 애, 여, 유, 요, 야; 위, 위, 왜, 위, 와/를 가지며, 2개의 성조소 즉 고조소(高調素 H, ')와 저조소(低調素 L, )를 가진다.

이 중에서 특기할 것은 'ㄷ, ㅌ, ㅎ, ㄴ, ㄹ, ㅌ, ㅆ'과 'ㅅ, ㅆ, ㅊ'이 이 지역어에서는 각각 '치음'과 '치조음'이라는 것과 운소인 성조소의 기능과 성조형이 동남방언이나 강원도 「삼척, 영월, 명주」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조소의 기능의 경우, 이 지역어의 '저조소(L)'는 동남방언 전체와, 그리고

‘고조소(H)’는 동남방언 중 경남방언 전체와 상반되는 의미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성조형의 경우, 2음절 어간 성조형에 LL과 3음절 어간 성조형에 LLL~LLH의 성조형이 존재하며, 3음절 이상의 곡용이나 활용에서 ‘고조(H)’로 끝나는 어절 성조형이 있다.

(2) 음운과정과 음운규칙에서,

① 어말이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말자음의 평파열음화와 어간말의 ‘애’나 ‘에’ 뒤에서 활용어미 초 ‘아’의 완전순행동화는 한국어의 다른 방언과 동일하다.

② 자음동화에서 비음화, 연구개음화, 양순음화는 의무적이며, 어미초 ‘ㄴ’의 유음화는 어간말 자음군 ‘ㄹ’과 ‘ㄷ’ 뒤에서만 일어난다.

③ 어미초 ‘으’의 원순모음화는 어간말의 양순음 뒤에서, 그리고 원순모음을 가진 어간말 음절 뒤에서 일어난다. 앞의 경우는 곡용과 활용에서, 뒤의 경우는 활용에서만 일어난다.

④ 어미초 ‘으’의 완전순행동화는 어간말 자음이 탈락한 뒤에 일어난다.

⑤ 어미초 평음의 경음화는 어간말이 장애음인 경우에만 곡용과 활용에서 일어나며, 어간말이 비음일 때에는 활용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⑥ 활음화에는 j화와 w화가 있다. 곡용에서의 j화는 ‘이’로 끝나는 명사에 처격어미 ‘에’가 통합할 때에 일어난다. 활용에서의 j화는 어간의 음절수나 어간말 음절구조에 관계 없이 다 일어난다(/지, 치, 찌] 아/에서도 j화가 일어난다). 이 경우에 보상적 장음은 어간이 1음절일 때에만 발생한다. 한편 w화는 활용에서만 일어난다. 이 경우의 w화는 어간의 음절수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그리하여 어간이 1음절인 경우에는 w화 후에 w탈락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w화에 의해 어간이 비음절화해도, 명령어 ‘-아라’와 통합할 때를 제외하면, 보상적 장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간이 2음절 이상인 경우, 어간말음절의 초성이 있으면, w화 뒤에 w탈락이 일어난다.

⑦ 부사형어미초 ‘아’의 교체는 어간이 1음절일 때와 2음절 이상일 때에 실현되는 양상이 다르다. 어간이 1음절일 때에는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이, 에, 으, 어, 우’이면 ‘어’로 교체한다. 어간이 2음절 이상이면, (1)교체 [5]의 (27)-(34)에서 보듯이, 부사형어미의 첫음 ‘아’의 교체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⑧ 후음탈락은 유성음 사이에서 의무적으로 일어나며, 유음탈락은 'ㄴ'이나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그리고 '하오체'의 서술종결어미 '오' 앞에서 일어난다. 또 어간말의 'ㅇ'이나 'ㄴ'탈락은 곡용에서만 일어나는데, 앞의 것은 유성음 사이에서, 뒤의 것은 주격어미나 계사의 '이' 앞에서 일어난다. 'ㄴ'탈락은 「훈춘, 도문」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⑨ 자음군단순화는 어간말 자음군이 [+파열음]과 [-파열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파열음]이 탈락하고, [+비음]과 [-비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비음]이 탈락하며, [+구강음]과 [-구강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구강음]이 탈락한다.

⑩ 어간말의 '으' 탈락은 활용에서 '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일어나며, 어미초의 '으'탈락은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일어난다. 다만 곡용의 경우에는 조격 또는 향격 어미 '-으루'의 '으'만이 탈락한다.

⑪ 어간말 '아'나 '어'탈락은 '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일어난다. 이 음운 과정은 활용에만 존재한다.

⑫ 활음탈락은 자음 뒤에서 일어나는데, j탈락은 곡용에서, w탈락은 활용에서 일어난다.

⑬ j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와 호격어미 '야'가 통합할 때에 일어난다.

⑭ 유기음화는 활용에서만 'ㅎ'으로 끝나는 어간과 유기음을 대립적으로 가지는 평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에 일어난다.

⑮ 모음축약은 활용에서만 '이'로 끝나는 어간과 '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에 j화 다음에 일어난다.

다음으로 어법면에서,

① 정어등분은 셋으로 구분된다. '헤라체', '하오체', '하압쏘체'의 등분이 그것이다.

② 서술법은 '헤라체'의 경우, 종결어미 '-(은, 는)다, -더라, -으께' 등으로 표시되고, '하오체'의 경우, 종결어미 '-(오, 소), -(읍, 습)때' 등으로 표시되며, '하압쏘체'의 경우, 종결어미 '-(으, 스)꾸마, -(읍, 습)떠마' 등으로 표시된다.

③ 의문법은 '헤라체'의 경우, 종결어미 '-니, -을까, -더니' 등으로 표시되고,

‘하오체’의 경우, 종결어미 ‘{오, 소}, {읍, 습}때’ 등으로 표시되며, ‘하압쏘체’의 경우, 종결어미 ‘{읍, 습}두, {읍, 습}면두’ 등으로 표시된다.

④ 명령법은 ‘해라체’의 경우, 종결어미 ‘-아라, -자’ 등으로 표시되고, ‘하오체’의 경우, 종결어미 ‘{오, 소}, -기오’ 등으로 표시되며, ‘하압쏘체’의 경우, 종결어미 ‘-음쏘, -집쏘’ 등으로 표시된다.

⑤ 부정법은 다음 4가지 유형으로 표시된다. ㉠ [아이, 못] [Vb, ±상태], ㉡ [Vb, -상태] | Vst {지, 디} | 말-, ㉢ [Vb, ±상태] | Vst {재, 대}(이)ㅎ, ㉣ [Vb1, -상태] | Vst 아 {아이, 못} [Vb2, -상태]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과 ㉣은 이 지역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어휘면에서,

이 지역어가 지닌 몇 가지 어휘적인 특징을 친족명칭과 인체, 민속, 곡식, 식품, 도구, 동식물 등의 어휘 그리고 음운변화와 관련된 어휘들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표 1>-<표 4>에 제시된 것이 그러한 어휘다.

(崔明玉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參 考 文 獻

- 곽충구, 1997, 「연변 지역의 함북 길주·명천 지역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 『애산학보』 20.
- 곽충구, 1998, 「육진방언의 어휘」, 『國語 語彙의 基盤과 歷史』, 서울: 태학사.
- 김병제, 1975, 『조선어 방언학 개요(하)』,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 宣德五, 趙習, 金淳培, 1990, 『朝鮮語方言調查報告』, 延邊人民出版社.
- 李翊燮, 1976, 「‘아재’고 : 방언조사방법의 한 반성」, 『동아문화(서울대학교)』 13.
- 전학석, 1982, 「훈춘지방의 주요방언의 음운수와 그 체계」, 『연변대학학보(조선어특집호)』.
- 전학석, 1988, 「중세조선어의 방점과 연길·개원 지방말의 고저장단 비교」, 『조선어연구』 2.
- 정용호, 1988, 「함경도방언연구」,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집필조, 1993, 『중국조선어실태 조사보고』, 북경: 민족출판사
- 채옥자, 1999, 「중국 연변지역어의 활음화에 대하여」, 『애산학보』 23.
- 崔明玉, 18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경북, 경산: 영남대 출판부.
- 崔明玉, 1998, 「現代國語의 聲調素體系」, 『國語學』 31.
- 한영순, 1967, 『조선어 방언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황대화, 1986, 『동해안 방언연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